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71
2010.08.04
gonggam.korea.kr



서울 G20 정상회의 D-100일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印尼 찌아찌아족의 한글 배우기 1년

4대강살리기 금강 부여보 현장을 가다

기획특집 서민이 OK할 때까지 민생 속으로!


4대강살리기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제를 살렸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땅, 우리 강을 보살피겠습니다.

경제회복 온기
서민·中企 체감하도록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좋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큰 폭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해 이미 지난해 3분기에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고, 정상 성장궤도로 순항 중이다. 고용도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실질임금과 소득도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표경기의 호조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그룹은 65퍼센트가 6개월 전에 비해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답변한 반면 일반 국민은 47퍼센트가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어느 경제나 위기가 오면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이 가장 먼저 어렵게 되고 회복은 가장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회 안정과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렵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간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특히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들의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필품 물가를 안정시키고, 든든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는 한편,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서비스와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자립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의 성과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전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간 거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한 저력을 보여줬다.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노력한 결과다.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제2라운드 위기 극복'에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 완수가 필요한 때다. G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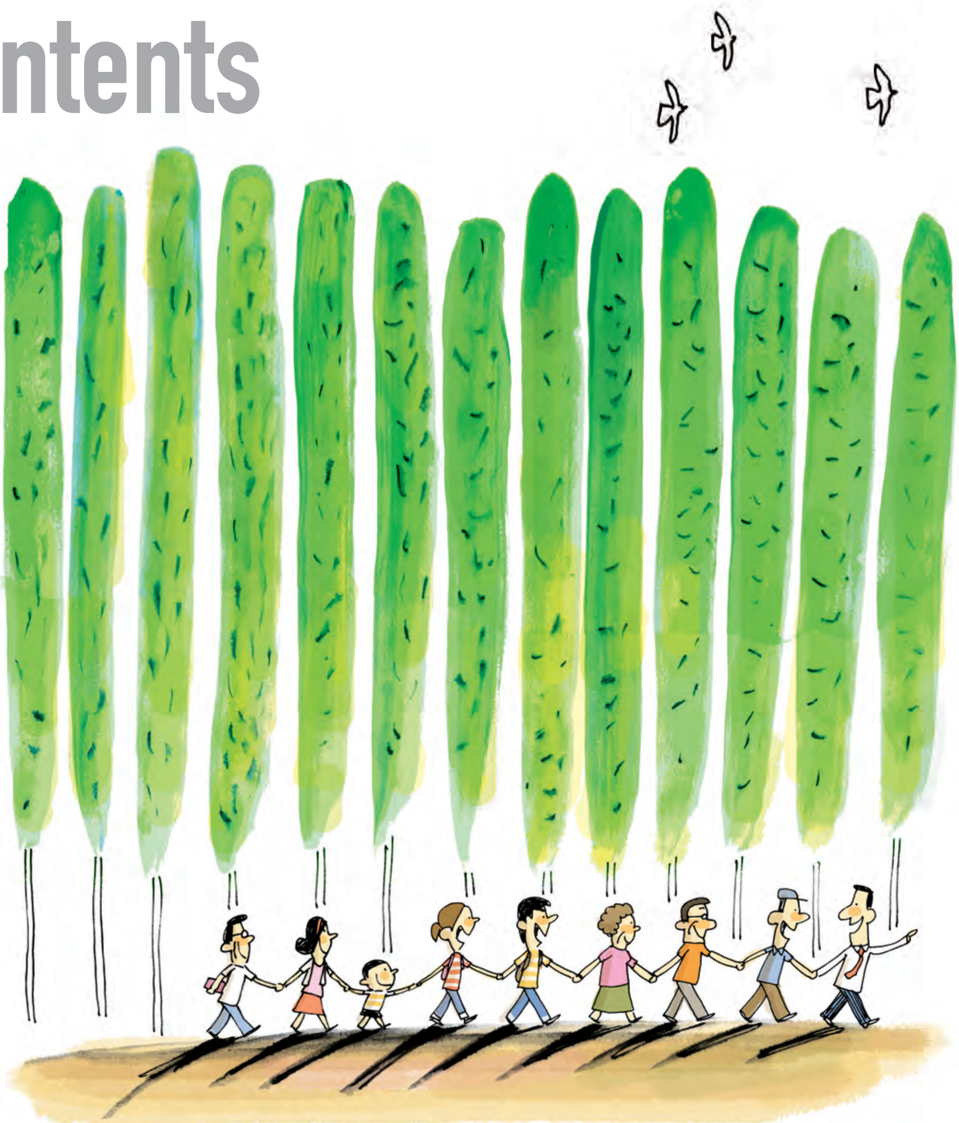
Weekly
2010.08.04
No.71(통권 172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탤런트 한효주 씨가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를 맡아 사공일 준비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박지성 선수도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다.
사진·조영철 기자



20 일러스트 · 황중환



08



53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8.0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서민이 OK할 때까지 민생 속으로!

올 상반기 7퍼센트대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경제위기란 말이 이제 아스라이 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따스한 나날인가요. '고용 없는 성장' 탓에
기업 이윤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승자독식 경제구조 때문에 하청업체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도 미소를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건네야 합니다.
서민과 청년층, 사회적 약자에게도
경제위기 극복의 결실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상생(相生)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56



중점기획 서울 G20 정상회의 D-100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0호(7월 28일자) 기획특집 '한식의 맛과 멋, 세계로 세계로!'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식,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한식세계화,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우리 한식이 세계인의 먹을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각국에 명품 한식당이 세워지면 국내 식품산업과 관광산업, 외식산업 등도 덩달아 번창하고 일자리도 늘어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니 기대가 큽니다. 이제라도 한식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_김서연

"'지구촌 식객 입맛을 사로잡아라' 기사를 읽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식세계화 사업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입맛에 맞고 우리 전통의 맛도 살릴 수 있는 음식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_우향화

"우리 고유의 술, 막걸리가 좋다"

"'위스키·와인 이겨낸 막걸리 전성시대' 기사를 접하고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스키와 와인은 솔직히 저 같은 서민에겐 늘 멀기만 한 이방의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고유의 술인 막걸리가 그야말로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 세계 곳곳으로 수출까지 된다니 더위도 잊을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_casj007

"몇 년 전 해외여행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친구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맛있는 한식에 대한 정보인데 이번 기획특집 기사들을 꼼꼼히 읽으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갈 때 선물로 한식 관련 책을 사주려고 합니다."_이순정

70호 중점기획 '4대강 홍수대책 문제없다'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4대강 관련 중점기획을 읽으면서 4대강 홍수 안전대책이 잘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낙동강 지류의 물이 불어나고 수위가 높아졌지만 일부 우려와 달리 사업 현장은 홍수에도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대비도 철저하다고 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되길 기대합니다."_강성주

70호 '명사가 읽는 책 〈한국의 글쟁이들〉'을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평소 글쓰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에서 명사가 추천한 〈한국의 글쟁이들〉을 읽어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지더군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선 그만큼의 독서량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글로 남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_최하나





알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학생 논문 공모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20~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 한국 대학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 | 20~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유 주제
참가 대상 | 2010년 9월 현재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졸업예정 포함) 중인 대학생(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
접수 기간 | 8월 1일~9월 17일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논문접수’ 코너에서 접수. 응모신청서, 재학증명서, 논문 1부, 논문 요약본 1부 등 첨부할 것
수상자 발표 | 10월 예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시상 내용 | 대상(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및 상금 5백만원 등 입상작 총 10편, 상금 총 1천9백만원 수여 예정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02-958-4675 miraekorea.org

“난 이렇게 성공했다” 소상공인 성공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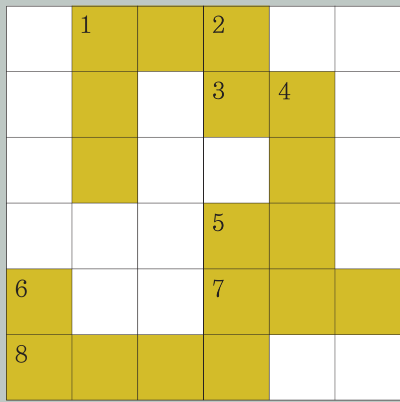
역경을 딛고 창업 및 경영에 성공한 소상공인 성공수기를 공모한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2010 소상공인 성공수기 공모전’은 소상공인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성공 노하우를 전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공모 주제 | 창업 방법, 준비 절차, 성공 노하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창업 성공 체험담
공모 내용 | 창업에 대한 도전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성공 사례, 소상공인진흥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을 통한 성공 사례 등
참가 대상 |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누구나
접수 기간 | 8월 31일까지
접수 방법 | 공모전 신청서 및 성공 수기(A4용지 4, 5장 내외. 원고지 25장 내외 자필원고도 가능)
접수처 | (우)302-708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032 동서빌딩 7층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수기 공모전 담당자 앞 혹은 전자우편 접수 sugi2010@sosang.or.kr
수상자 발표 | 9월 말 예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76 seda.or.k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8월 1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공적인 재원(財源)을 사용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베푸는 교육. 사교육에 대립되는 말.
3. 예전에, 종에 상대하여 그 주인을 이르던 말.
5. 날짜와 시간.
7. 중화요리의 하나.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죠. “여기 짬뽕 둘, OOO 셋 주세요.”
8.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부에서 싼값에 제공하는 주택의 이름이기도 하죠.

세 로

1. 공부하는 방.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최근 교육용 인터넷 콘텐츠를 TV로 내려받아 공부하는 ‘인터넷 TV(IPTV) OOO’을 후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2. 달리기, 뛰기, 던지기를 기본 동작으로 하여 행해지는 각종 경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한국 OO경기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4. 예전부터 있어 오던 시장을 백화점 따위의 현대식 물건 판매 장소와 대비하여 이르는 말. 재래시장.
5. 직장. 직업. “정부는 OOO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맡아서 보증함. 민법에서 채무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무OO 대출.’

〈Weekly 공감〉 69호(7월 2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방학 5 교무실 6 호전 7 소식 8 이바지
세로 1 예방 3 학교급식 4 안전 6 호랑이 7 소지

〈Weekly 공감〉 69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규성·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김미정·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김은경·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성2구
박미해·부산 북구 구포1동
최미은·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일등 국민이 명품도시 만든다”

이준혁 서울지방경찰청 교통 분야 홍보대사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이준혁입니다. 저는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 분야 홍보대사를 맡은 후로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는 운전을 하면서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우리는 1년 3백65일 법과 규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법을 어겼을 때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지만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을 물게 되면 운이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인당 2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질서의식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기초질서나 교통질서와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 수준만 높다고 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국민 의식수준도 함께 성숙해져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전국 각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교통의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인도 바닥에 붙어 있는 껌 자국들과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야말로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인데 말이죠.

일등 국민이 되고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부터’ 공동체사회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개개인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신적, 문화적 성숙이 함께 이뤄질 때 우리나라도 분명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렵니다. 요즘 자전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친환경 참살이(웰빙) 스포츠이자 녹색생활의 대표적인 실천법입니다. 더욱이 자전거 타기는 걷기에 비해 열량이 1.6배나 더 소모돼 다이어트에도 좋고 대기환경 개선, 교통체증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올여름 휴가에는 자전거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싱그러운 자연의 정취, 이제 두 바퀴로 달리며 오감(五感)으로 만끽하세요!

글 · **이준혁(탤런트)**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장삼동 부산 북구 화명동

1. ‘국제결혼 맞선 보려면 소양교육 받아야’ 기사를 읽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안타까운 국제결혼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국제결혼에는 배우자 나라의 언어와 문화, 관습 등의 이해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의 잘못된 사례들을 막기 위해 정부의 관련 정책 설명 및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번 기획특집을 읽고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식도 세계 속 대표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통음식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춘다면 상당한 호응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3. 본격적인 피서철입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의 교통정보와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수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 여름철이 되면 바닷가나 계곡으로 물놀이 휴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에 반해 물놀이 안전수칙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에 도전한다’ 기사를 통해 모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즐거운 휴가를 보냈으면 합니다.

2. 이번 기획특집을 읽으면서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세계 유명 도시에 인기 있고 멋있는 한식당이 그렇게 많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한식세계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맛과 멋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3.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교생들이 찾아가면 좋을 해병대 캠프,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다시 민생 속으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생길거예요

2010년 7월 5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활력 있는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에 '좋은 일'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담긴 일자리 만들기,
고용노동부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일이 대한민국의 내일,
이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내일을 펼치겠습니다

JobYoung
www.jobyoung.work.go.kr

일자리 위주로, 국민의 눈으로, 현장 중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서울 G20 정상회의 D-1백일, 캐치프레이즈 공개

서울 G20 정상회의가 8월 2일로 1백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개최가 결정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를 위한 대외 메시지가 공개되고 사전 준비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

서울 G20 정상회의의 대외 메시지(캐치프레이즈)가 공개됐다. 서울 G20 정상회의 D-1백 일을 즈음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오는 11월 11,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대외 메시지를 공개하고 그간의 준비 상황과 남은 일정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외 메시지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지향하는 방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틀'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적합하다고 준비위원회는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또 이 대외 메시지가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의 취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철 기자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 외벽을 두른 푸른 가림막 위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다.

준비위원회는 또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세계 경제 동향(Global Economy)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개발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등 8개 분야로 정리했다.

한편 '고위급 개발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가 7월 19, 20일 서울에서 열린 데 이어 셰르파(Sherpa) 회의가 7월 20~22일 역시 서울에서 개최돼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회의 일정이 시작됐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틀' 의미 담아

고위급 개발 실무그룹 회의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 합의된 개발 의제를 구체화하고 논의 방향을 정하는 회의로서, G20 국가의 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히말라야 등반가들을 위한 길 안내나 짐 운반 등의 일을 하는 '셰르파(Sherpa) 부족'에서 이름을 가져온 셰르파 회의는 G20 정상들의 개인 대리인들이 모여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비공개 회의다.

이번 셰르파 회의에는 G20 정상의 개인 대리인, 국제기구 대표와 수행원 등 약 1백명이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준비위원회는 남은 1백 일 동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융과 재무, 에너지, 개발 관련 사전 준비회의들을 잇따라 개최해 각국의 중지(衆志)를 모으고 국제기구와는 이견을 조율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공모를 통해 대외 메시지, 공식 심벌 등을 결정하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G20 영 앰배서더 발대식'을 갖기도 한 준비위원회는 앞으로도 '청사초롱 리포터' 등을 모집하며, 우리 국민의 참여를 넓혀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김연아 박지성 한효주 홍보대사 위촉

김연아, 박지성 선수와 탤런트 한효주 씨가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7월 28일 김연아 선수와 탤런트 한효주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박지성 선수는 소속팀으로 복귀하기 위해 7월 27일 영국으로 출국해 이들보다 먼저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장을 받은 김연아 선수는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며 "올림픽 때 제게 주셨던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서울 G20 정상회의에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효주 씨도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될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가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탤런트로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지성 선수는 먼저 가진 위촉식에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하며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며 "홍보대사 활동 기간에 '코리아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영철 기자


연합



사공일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전 세계 주요 CEO 100여 명 G20 정상회의 전 비즈니스 서밋"

서울 G20 정상회의 D-1백 일을 즈음해 누구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 그간의 준비 상황을 공개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의 이모저모를 설명하며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을 위해 G20 회원국별로 최고경영자(CEO) 4, 5명씩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G20 회원국 이외에도 중요 CEO를 초청해 1백명 내외 규모가 될 겁니다."

사공일 준비위원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 D-1백 일을 즈음해 '비즈니스 서밋'의 구체적 설계도를 공개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정부 주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인 'G20 프로세스(Process)'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민간 부문 정상회담'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하루 전인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열릴 비즈니스 서밋은 ▲무역과 투자 ▲녹색성장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분야로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별로 3개의 하위그룹을 만들어 모두 12개의 주제별 사전 논의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취합된 12개 주제별 합의안은 비즈니스 서밋에 상정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G20 정상회의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12개 주제별 주관 국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밋 참가 예정 CEO의 대리인들이 사전 협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충분히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공일 위원장은 "비즈니스 서밋은 하나의 프로세스"라며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비즈니스 서밋이 다음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도 일종의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긴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비즈니스 서밋과는 그 규모와 프로세스가 다른 '경제단체장 모임' 형식이었다.

처음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 프랑스에서도 지속되길

사공일 위원장은 "우리가 처음 개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프랑스에서 열릴 다음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와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 서밋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 옵서버 국가들에 대해선 "토론토 정상회의 때와 같이 5개국을 유지하되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가(기존 1개국)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에 '출구전략'이란 단어가 빠진 데 대해 "출구전략이란 말은 사용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며 "때로는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G20 정상회의 스케줄대로라면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해 재정확대 정책을 (축소하기보다) 성장 친화적으로 펼치자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국가별로 기존 금리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나라도 있고, 재정건정성이 시급한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구전략'이란 용어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사공일 위원장은 "출구전략은 각 나라 상황에 맞도록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 모두 같은 마음으로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어린이기자단과 사공일 위원장의 만남

"선진 시민의식은 성공 개최 밑거름"



어린이기자들이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만나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땐 어떻게 조정하나요?"
서울 G20 정상회의를 1백여 일 앞둔 7월 26일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자리한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동아〉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기자 20명을 초청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소년조선일보〉 이승현(경기 남양주시 창현초등학교 6학년) 기자의 이견 조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20개국이 한자리에 모이니 각국의 이해관계와 경제 사정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이럴 경우 의장국이 조정하게 되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동아〉 송나라(서울 자운초등학교 5학년) 기자로부터 "준비위원회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공일 위원장은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장관은 장관들끼리 영상이나 전화 회의를 하고 e메일을 주고받으며 각 나라의 의견을 모아 이견을 좁히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이끌어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상회의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어린이들에게 G20를 널리 알릴 방안은 무엇인지, 어린이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사공일 위원장은 "우리 스스로가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라며 "여러분들이 먼저 서울 G20 정상회의의 홍보대사가 되어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동아〉 양현(서울 목운초등학교 6학년) 기자의 어머니 김지영(40) 씨는 다른 어린이기자단 보호자들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늘 행사를 위해 아이와 같이 G20에 대해 공부하며 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나와 우리 가족부터 공중예절 지키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탄생까지

‘도서관 모임’서 세계경제 큰 틀로 성장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초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작은 ‘라이브러리 그룹(Library Group)’이 오늘날 G20의 발원지다. G20 정상회의는 현재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격상돼 실질적으로 세계경제 운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 경제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G20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의미와 역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란 국제사회 차원의 규범과 규칙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국가(Nation State)와 다른 방식으로 규범을 만든다. 국제사회에는 법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은 없는 대신 국가 간의 조약, 개인과 민간기관의 거래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규범을 만들며,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규범을 만들고 집행하기도 한다.

지구촌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유엔(UN)이다.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경제 분야는 유엔과 분리된 국제기구들이 담당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을 시작으로 국제금융 분야의 국제통화기금(IMF) 등 각 경제 분야별로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설립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러스트 · 김영민

이러한 국제기구의 규범이 공식적 절차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GATT의 모든 가맹국은 공식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들의 리더십에 의존했다. 설립 초기부터 우루과이라운드까지 미국과 유럽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강대국들은 필요에 따라 비공식 협의회를 운영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해온 'G7'이다.

G7 결성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달러화 가치의 급락으로 미국 달러를 주거래 통화로 삼는 브레턴우즈 협정이 흔들리고 세계경제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1974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 1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스미소니언 합의'를 도출했고, 당시 조지 슐츠 미국 재무장관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에게 백악관 도서관(라이브러리)에서 따로 만날 것을 제안한 데서 '라이브러리 그룹(Library Group)'이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결성된 것이 G5(Group of 5)다. G5는 1975년 이탈리아, 1976년 캐나다의 참여로 G7으로 확대 개편됐다. G7은 1997년 러시아가 참여해 G8이 됐으나 재무장관회의는 아직도 G7 국가만이 참여한다.

1999년 시작된 G20 재무장관회의가 정상회의 모태

G20 정상회의의 모태가 된 G20 재무장관회의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흥국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1999년 시작된 비공식적 협의체다.

비공식 기구와 절차가 확산된 배경에는 공식 국제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특히 유엔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백90여 회원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점도 있지만 서방국가들에 비판적인 강성 개발도상국들이 유엔 논의를 주도하면서 서방 선진국의 지원과 신뢰를 상실했다.

IMF와 세계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논의는 수년간 진행돼왔으나 아직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출범한 G20 정상회의의 등장 이전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영역별로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이를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가 보완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IMF다. IMF의 자문에 응하는 비공식 협의체는 G7과 G20이다. IMF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1백8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다.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1974	오일쇼크 이후 미국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에게 제안, '라이브러리 그룹(Library Group)' 에 이어 G5(Group of 5) 결성
1975	이탈리아 참여
1976	캐나다 참여, G7으로 확대
1997	러시아 참여, G8으로 확대. 경제 분야는 G7 유지
1999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G20 재무장관회의 출범(G7과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유럽연합(EU) 의장국 참여)
2008	장관급 G20 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 최초의 G20 정상회의 개최(11월 미국 워싱턴)
2009	G20 2차 정상회의(4월 영국 런던) G20 3차 정상회의(9월 미국 피츠버그)
2010	G20 4차 정상회의(6월 캐나다 토론토) G20 5차 정상회의(11월 대한민국 서울)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 기구와 공식 기구가 공존하는 '클럽모델(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코헤인 지칭)'로는 국제사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IMF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회원국, 특히 신흥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IMF 구제금융 메커니즘을 회피하고 외환보유고의 확대, 지역통화협력 등을 통해 자국의 통화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의 클럽모델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세계경제가 소수 강대국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다원화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시장의 확대로 모든 영역에서 상호 상관성과 의존성이 높아져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자신의 영역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졌다.

신흥경제와 아시아의 경제 규모가 확대돼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 이슈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과 민주주의 발전으로 국제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늘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편은 불가피했고, G20 정상회의의 출범은 시스템 개편의 시작이 됐다.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국제사회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안보 분야의 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면 경제 분야의 축은 바로 G20이다. G

글 · 모종린(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당장 눈에 보이기나 하지, 서울 G20 정상회의는 과연 무슨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일까. 얼른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했던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 금방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 기억에 깊이 각인돼 있는 외환위기의 고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 연이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안전망'이란 원래 빌딩 공사 현장과 같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 밑을 지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치는 그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안전망이란 단어가 경제나 사회 곳곳에 적용되어 새로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안전망, 금융기관 감독 · 예금자 보호제도 포괄한 개념

이 중 대표적인 용어가 '사회안전망'이다. 사회보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경제위기 막겠다"

서울 G20 정상회의, IMF 대출제도 개선 · 외화유동성 공급 장치 마련

세계 정상들이 서로 인사나 건네는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거두자는 것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취지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난 네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 등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절실한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의례적 모임이 아니라 세계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회의도 열린다. 사진은 G20 정상들의 대리인이 참석해 7월 20~22일 서울에서 열린 세르파(Sherpa) 회의.

동아DB

다. 또한 금융 측면에서도 '금융안전망'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제도나 예금자 보호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안전망의 개념을 국제금융시장에 적용한 것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중소 규모의 개방경제가 급격한 자본 유출과 유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최근 G20 정상회의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 규모의 개방경제는 해외자본의 유출, 유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무엇보다 중소 규모의 개방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한 위기대응 시스템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개별 국가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주로 신흥개도국들이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야기되는 금융위기에 대비해 평소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흥개도국들이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축적해야 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를 크게 개선하거나 새로운 외화유동성 공급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G20 정상회의 통해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기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더불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개발 이슈'는 개도국의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을 통해 세계 각국 간의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이다. G20 국가들이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 개발, 금융접근성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 국가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발 이슈의 요지다.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세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개도국 개발 지원은 G20 정상들이 다뤄야 할 필수 과제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반영한 의제다. 우리나라는 G7에 속해 있지 않은 국가로서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신흥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개도국들로부터 다른 G20 회원국보다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해 있지 않은 많은 국가들의 처지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G20 정상회의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격상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장벽 신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 프로그램이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의제를 포함한 상당수 의제들의 합의가 이뤄져 이들 의제에 관한 합의 내용이 나중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릴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를 두루 안정시키고 지속적 성장을 촉진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울 G20 정상회의가 논의하고 이루고자 하는 과제들이다. G

글·이대기(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개 회원국 GDP, 지구촌의 85% 차지

알기 쉬운 서울 G20 정상회의 Q&A

G20 정상회의는 유엔에 가입한 1백92개국 중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20개 나라 정상들의 모임이다. G20 정상회의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 국민이 매일 살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들고 조율하는 '지구촌 리더 모임'이다. 어렵고 멀게만 여겨지는 G20 정상회의, 쉬운 Q&A로 알아보자.

G20의 'G'는 무슨 의미인가.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한다. G20 회원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기존 G7 회원국과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신흥경제 12개국,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2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러스트 · 이우정

G20 정상회의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지구촌 리더 모임'이다. 1999년부터 원래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자 급히 이를 진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지구촌의 리더 격인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G20 정상회의다.

G20 정상회의는 일 년에 두 번도 열리는데 부정기적 모임인가.

출범 당시만 해도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는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됐고 정례화에도 합의해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2011년부터는 연례 모임으로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는 이제 실천적 행동전략까지 논의되는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이며, G20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과연 G20가 지구촌을 대표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G20 회원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이르고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은 전 지구촌 GDP의 85퍼센트를 차지했다(2008년 통계).

G20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9월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81퍼센트에 달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를 제외한 통계이니 이 두 나라까지 더하면 그 이상일 것이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그렇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도 통한의 역사로 남아 있듯이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이준 열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려다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는 수모를 당한 끝에 울분에 못 이겨 자결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의 '동네 유지 모임'이었던 만국평화회의장에 발도 못 디뎠던 우리나라는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하는 등 일제 강점과 분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 고초를 겪어왔다.

그러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흐름의 실질적 축인 G20 회원국으로서 '지구촌 리더 모임'의 당당한 일원이 됐을 뿐 아니라 회의의 주최로 좌장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사건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은.

지난해 9월 열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참고해 예상하면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35명 내외의 세계 최고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하게 된다.

또 이들을 수행할 3천5백여 명의 수행원과 3천여 명의 취재진, 4천여 명의 경호원 등이 방한할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비결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국민들이 땀 흘려 축적한 국력이 뒷받침됐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서울 개최가 결정된 피츠버그 회의까지 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한국 정상의 리더십이 G20 정상들 사이에서 인정된 점은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에 분산돼 있던 G20 관련 조직들을 통합해 일원화한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국내 전문가들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와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히 협조해 오는 11월 11, 12일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제 선정과 의견 조율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그동안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온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의제를 들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해보자는 논의다. 여기에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의제가 처음 선보이게 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란.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은 말 그대로 금융을 위한 안전장치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신흥국들을 위한 금융안전망이다. 이들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 시 받는 충격을 덜기 위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외화를 쌓아놓는 바람에 글로벌 불균형이 생기고,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예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개발 이슈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소득과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가지 의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소중한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료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개인의 소중한 기록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자료기증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110-755) 서울시 종로구 중학천길 42 이마빌딩 6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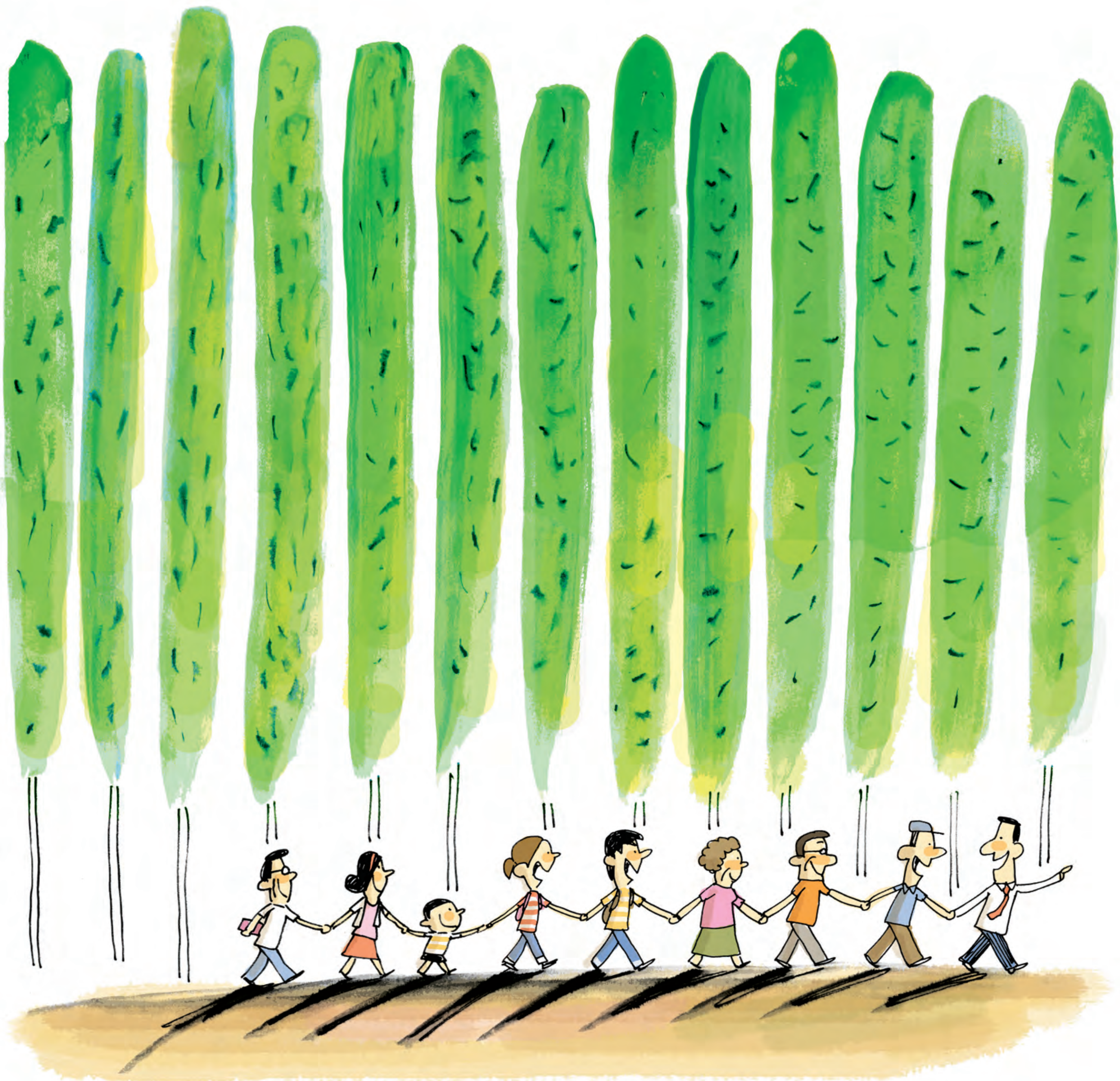
Tel. **02)3704-9935** Fax. **02)3704-9947** **http://donation.museumrok.go.kr**

※기증된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 획 특 집

서민이 OK할 때까지 민생 속으로!

올 상반기 7퍼센트대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경제위기란 말이 이제 아스라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따스한 나날인가요. '고용 없는 성장' 탓에 기업 이윤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승자독식 경제구조 때문에 하청업체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도 미소를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건네야 합니다. 서민과 청년층, 사회적 약자에게도
경제위기 극복의 결실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상생(相生)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일러스트 · 황중환



민생 살피기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7월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경제 햇살 골고루”

경기회복 결실 … 서민·중소기업과도 나눠야

아랫목을 데우면 당연히 윗목도 따뜻해질 줄 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면 기업이 살아나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 10년 만에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서민 살림살이는 팍팍하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한쪽에만 볕이 드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민생 속으로

올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성장률은 7.6퍼센트.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2008년 말 마치 빙하기와 같이 세계를 엄습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감수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놀라운 회복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달랐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7월 초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경영환경이 개선됐다”는 중소기업은 50.3퍼센트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67퍼센트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모 대기업이 올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의 경기회복 체감 양극화가 심각

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7월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좀 더 들여다보면 대기업의 수출실적이 두드러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의 중소기업 비중이 미미한 것도 체감 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하도급 거래상의 문제' '인력수급 문제'와 더불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꼽혔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구입 등으로 자금수요는 증가하나 보증비율 축소 등 보증 및 대출심사가 강화돼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자금조달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서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상존(常存)하는 어려움이다.

이 대통령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 상황 점검차 7월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했다가 캐피탈 업체들의 금리가 30퍼센트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로 인해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해온 정부의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영세 자영업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이 사람들이 구두를 팔아 그 이자를 어떻게 갚겠느냐"며 고(高)이자 현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미소금융지점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동안 친서민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다음 날 오전 청와대 수석들과 만나 "중소기업, 약자도 자생할 수 있는 독자 생존력이 필요하다. 미소금융은 중소기업이나 약자도 자생하도록 하는 '고기 잡는 그물'이다"라며 7월 말 현재 53개인 미소금융지점을 연내 2백 개 이상으로 늘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약자도 자생할 독자 생존력 필요"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를 촉구하며 '상생(相生)'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친중소기업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 각료들도 기업과 시장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란 기치를 내걸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대기업들이 경기회복의 결실을 본 만큼 이제 사회의 근간인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도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견해다.

물론 대기업들도 할 말은 있다. 30대 그룹은 올 초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지난해보다 16.3퍼센트 늘어난 8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에 따라 투자여건이나 대상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금보유액이 높아지는 것은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 내가 반(反)대기업 정책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양극화가 좁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효과가 없으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의 산업화 초기엔 경제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졌으나 1987년 이후 노사분규가 심해지고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1990년대 중반 들어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유 위원은 "노동시장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되면서 분배구조가 악화되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중산층이 얇아지면 분배지향적 사회가 되어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다"며 "분배를 이뤄 사회통합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 근로자의 7퍼센트(노동조합이 있는 3백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와 그 반대쪽인 27.7퍼센트(노동조합이 없고 3백인 미만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가 3배가 나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 다만 과도하지 말아야 하고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서민과 중소기업 관련 말말말

"대기업들이 지난 2년간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대기업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 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7월 20일 국무회의

"내 소득이 늘지 않고 가게에 손님이 없는데 무슨 경기회복인가. …자식이 직장을 잡아야 경기가 회복된 것이지, 그 전에는 (국민이) 어떤 지표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8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고 있다. 막말로 매년 5퍼센트씩 납품단가를 깎으라면 10년이 지나면 거저 납품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7월 28일 시화·반월공단 방문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 공정한 수익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7월 28일 1인 창조기업 브리핑 자리

“희망과 용기를 대출받았습니다”

미소금융·지역희망금융사업 등 서민에게 자활의 길 열어줘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출사업을 벌이고 있다.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사업인 ‘지역희망금융’, 최근 출시된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 등은 서민들에게 희망찬 자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7월 27일 서울 신길동 영등포단위농협에서 한 고객이 햇살론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1 일용직 근로자 이명숙(가명 · 50) 씨는 지난해 5월 노후를 위해 자그마한 반찬가게를 차렸다.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5만원이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라 자신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매일 들어가는 식재료비도 갈수록 부담이 됐다. 문제는 상품의 위생적 가치를 유지할 만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 있었다.

당장 인테리어와 제반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야 했다. 그때 그의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이다. 인근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난 2월 5백만원을 대출받은 이 씨는 반찬 진열장(3백80만원)과 식재료(1백20만원)를 구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 덕에 그의 가게는 매일 20여 가구에 고정적으로 주문배달을 하는 등 매출 신장을 이뤘다.

#2 광주시 남구에서 슈퍼마켓 겸 찻집을 운영하는 박소연(가명 · 47) 씨는 손님이 크게 줄어 지난해 힘든 겨울을 보냈다. 전기 관련업을 하는 그의 남편도 일감이 없어 세 자녀 학비는 물론 급식비조차 내기 힘들 정도였다.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벌이도 시원찮아 금리가 높은 은행대출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던 박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3월 말 새마을금고로부터 신용도가 낮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금리로 소액을 빌려주는 ‘지역희망금융’ 사업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 그는 곧바로 3백만원을 대출받아 학비와 급식비를 납부하고 가게에 들일 상품도 보충해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민금융

생계가 막막했던 서민들의 삶에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서민대출사업 덕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그중 하나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이며, 금리는 연 4.5퍼센트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크게 낮다.

미소금융사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뜻을 합쳐 자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전국의 지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관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원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2조2천55억원을 출연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미소금융 지점은 7월 23일 현재까지 전국에 56개가 개설됐으며 총 2천9백12명에게 1백84억여 원의 자금을 대출했다.

미소금융 지점 2백~3백 곳으로 확대

미소금융중앙재단 장훈기 본부장은 "짧은 기간 동안 서민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실시간 대출 상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다행"이라면서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 점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말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점을 2백~3백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이 적어도 신용등급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 체계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지원 대상의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희망금융' 사업도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지역희망금융은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신용(6~8등급) 영세 자영업자나 3개월 이상 무등록 자영업자에게 무담보, 저금리(연 4퍼센트)로 최대 5백만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시중보다 금리가 3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고 3년 분할상환이어서 대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전국 1천5백 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청한 대출 건수는 4천5백59건으로 이 중 64퍼센트인 2천9백49건에 88억3천2백만원을 대출했다.

7월 26일부터 대출 업무를 개시한 '햇살론'도 인기다. 미소금융에 비해 금리는 높은 편이지만 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조건도 완화된 햇살론은 출시 이틀간 18억원이 넘는 대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이 출시된 후 이틀 동안에만 2백70명에게 18억1천8백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백73만원이며 전원 생계자금을 대출받았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민금융 확대 위한 환경 조성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는 서민금융 전문가다. 지난해 여의도연구소 토론회에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제하고, 올해 2월에는 한국금융연구원(KFI) 정찬우 박사와 함께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서민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의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신용도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은행이 아닌 서민금융기관을 보증대출의 공급창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서민금융 정책 가운데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대출 취급기관과 적절한 손실 분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금리 또한 신용등급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기관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스스로 적극적인 서민금융 확대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된 햇살론의 경우 일률적인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서민금융기관들이 경쟁원리에 따라 금리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서민금융 정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과 사회보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 사회보장 차원에서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지원 대상은 이를 통해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 외에 창업교육 등의 지원이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러스트 · 이우정

‘햇살론’ 서민 삶 밝힌다

신용 6등급 이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면 대출 가능

7월 26일 출시된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이 서민들의 삶을 밝힐 희망 창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햇살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30~40퍼센트의 이자 부담을 안고 대출을 받아온,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10퍼센트 초반대의 저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출제도다.

서민금융

“무담보·무보증, 지금 즉시 전화 한 통으로 1천만원을 빌려드립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휴대전화를 울리는 대부업체들의 문자메시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중은행권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은 주저 없이 ‘삭제’ 버튼을 누르겠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마땅히 담보할 재산도 연대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는 이들에겐 이보다 달콤한 유혹도 없다. 더구나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까지 적다면 조건이 까다로운 은행권 대출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결국 이들은 30~40퍼센트의 금리 부담을 안고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해 또 다른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의 높은 사금융 의존도로 대부업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3천9백89개 금융권 10퍼센트 초반 이자로 빌려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7월 26일 출시된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

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천9백89개 서민금융회사들이 10퍼센트 초반대의 이자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대출 규모는 앞으로 5년간 약 1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관계부처, 서민금융회사 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햇살론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7월 26일 기준으로 상호금융은 10.6퍼센트, 저축은행은 13.1퍼센트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의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퍼센트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퍼센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햇살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민간 분야에서 상호금융이 8천억원, 저축은행이 2천억원 등 1조원을 부담해 마련된다.

고금리 자금 빌린 경우 저금리 대출받아 대환 가능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사업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생계자금은 3~5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노점상,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영세 무점포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연체나 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 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의 이용자도 햇살론을 중복해서 쓸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고금리 대출상품 이용자는 저리의 햇살론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미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대환할 수 있다. 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농협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햇살론의 활성화로 서민들의 금융 이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1천만원씩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빌려주면 약 1백만 명의 서민에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상호금융권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햇살론은 이러한 부담이 없어 이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배준수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이 낮아져 서민들이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햇살론 출시를 당초 연말로 계획했다가 7월 26일로 앞당겼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자가 햇살론으로 갈아탈 경우, 금리가 30~40퍼센트대에서 10퍼센트대로 낮아져 총 6조원가량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은 7월 26일부터, 산림조합은 8월 16일부터 햇살론을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미비점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햇살론' 문의 여기로 하세요!

농협 ☎ 1577-5522	새마을금고 ☎ 1588-8801, 1599-9000
신협 ☎ 1644-8910	수협 ☎ 1588-1515, 1644-1515
산림조합 ☎ 3434-7222	저축은행 ☎ 397-8600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대출한도 자료 · 금융위원회

대상	사업자등록 여부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록사업자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1,100만원
	무등록 점포 보유(임차 등)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무등록 점포 미보유(노점 등)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한도

대상	대출조건	대출한도
신규 창업자	정부·공공기관 창업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5,000만원
등록·무등록 사업자	등록사업자는 개업 1년 이내, 무등록 사업자는 개업 3개월 이내인 사업자	5,000만원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

대상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일용직·임시직 포함)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통시장, 지역 문화 명소로 탈바꿈”

맞춤형 교육으로 고객지향형 점포 경영자로 재탄생

전통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주차장이 갖춰지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밝힌 아케이드가 설치돼 쇼핑하기 편리해지고 밝고 깨끗해졌다. 쿠폰, 상품권은 물론 이벤트도 쏠쏠하다. 상인들도 상인대학에서 고객만족, 상품 진열, 포장 등 마케팅 기법을 배우며 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상인들은 상인대학을 다니며 전통시장을 발전시킬 방법을 배우고 있다. 6월 25일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 상인대학을 졸업하는 상인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부산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에서 어패류를 판매하는 김양오 씨는 상인회 이사와 상인대학 2기 졸업생회 총무를 맡아 시장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상인대학에서 수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그는 어패류를 고무대야에 담아 팔던 방식을 과감히 바꿔 수족관을 갖췄다. 상품 앞에는 홍보 거치대(POP)를 마련해 고객의 쇼핑 편의성도 높였다.

김 씨는 “수족관 설치에 돈이 들었지만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매출이 더 늘었다”며 “모든 게 상인대학을 다닌 덕분”이라고 말했다.

상인대학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국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다. 의식 혁신, 고객만족, 상품 개발, 포장, 재고관리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상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생업과 병행하며 주 2회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해 말까지 1만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했고 올해는 전국 1백 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에서 숙녀복과 전기제품 2개 매장을 운영하며 상인대학에 다닌 이송만 씨는 “이전에는 ‘그냥 장사만 하면 되지’ 했는데 이젠 고객을 생각하게 됐다”며 “장사 경력 35년 만에 ‘고객님’ 소리를 처음 해봤다”고 털어놨다.

상인대학, 정보화교육, 선진국 시장 탐방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고객지향형 점포 경영자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도 밝고 깨끗하고 쇼핑하기 편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부산 충무동 새벽시장 '거제상회'는 어패류를 고무대야에 담아 팔던 방식(왼쪽)에서 벗어나 수족관을 설치해 깔끔한 가게로 바뀌었다.

대구 달서구의 서남신시장은 전에는 평범한 골목시장이었으나 올해 시장경영진흥원의 점포지도 시범 시장으로 선정된 후 시장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점포 경영, 상품 진열, 고객서비스 등에서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1시장 1팀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원산지·가격표시제 실시 등 환경 개선에도 적극

서남신시장은 주변에 성서공단, 이현공단 등 대규모 공단과 이슬람인들의 기도모임 장소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요리 강습회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미지 통합(CI) 및 POP 규격화 작업도 진행했다. 요리 강습회 이후 외국인 신규 고객과 매출이 늘어나 내년에는 행사 규모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CI와 POP는 소비자들에게 깔끔하고 정돈된 시장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제주시 동문수산시장은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해 밝고 깨끗한 시장으로 탈바꿈했고 영세상인들의 전기세 부담도 줄였다.

또 전남 곡성 기차마을전통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상인들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실시, 친환경 인증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등 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 부평중앙지하상가도 통로 조명을 LED로 교체해 상가가 밝아지고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김세훈 상인회 회장은 "LED는 발열이 적기 때문에 실내온도가 섭씨 3, 4도는 낮아져 에어컨 가동비도 크게 줄고, 조도가 높아 실내가 훨씬 밝아지고 쾌적해졌다"고 말했다.

부평중앙지하상가는 또 주변의 롯데마트와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부평중앙지하상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및 상품권을 발행해 시장과 제휴업체 모두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은 특산물 쇼핑과 지역관광,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장 투어'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각설이 공연, 짚풀공예, 투호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흥겨운 옛날 장터 분위기를 재현하고, 시중가보다 저렴하며 생산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특산물 전문매장을 열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토요시장 개장 이전에는 연 매출액이 1백10억원이었으나 개장 5년째인 올해 4월까지 8백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방문객 수도 2배 늘어났다.

현재 전국에는 1천5백50개 전통시장에 21만 개 점포가 있으며 36만명의 상인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등 사업에 1천5백억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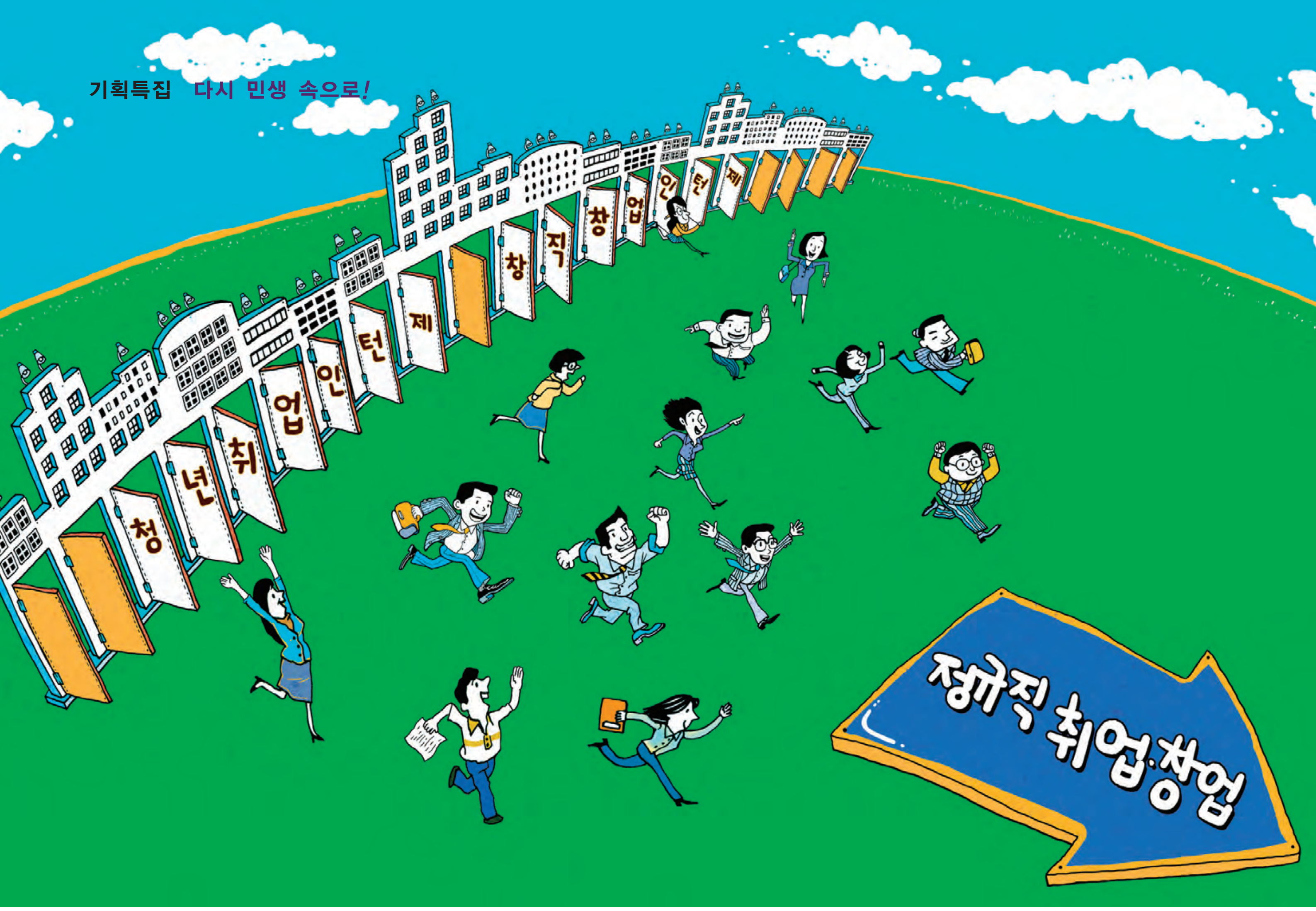
특히 주차장과 아케이드 설치 등 쇼핑환경 개선에 올해 1천5백7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 의하면 시설을 개선한 시장은 매출이 4퍼센트 증가했으나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시장은 매출이 오히려 24.4퍼센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현대화가 시장 활성화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 비씨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카드수수료를 2.0~2.5퍼센트로 인하했고, 연 매출액이 9천6백만원 미만인 시장 상인의 카드수수료는 1.6~1.8퍼센트로 낮췄다.

이 밖에도 경품 행사, 공동쿠폰 발행, 특산물 특가 판매,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정석연 원장은 "전통시장 살리기는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특성화된 전통시장의 성공 모델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혜련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두드려라 인턴제, 취업문 열릴 것이다

진로 설정에서 취업까지 53가지 청년취업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창직·창업 인턴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취업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에 자신이 없다면 정부 정책을 통해 도전해보자. 진로 설정부터 취업까지 53가지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청년고용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사혜연(25) 씨는 한동안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에겐 웬만한 대학생은 다 간다는 해외연수 경험도, 토익 점수도, 하다못해 자신감마저 없었다. 컴퓨터학과를 나온 그는 마음을 다잡고 컴퓨터 관련 학원과 도서관을 오가며 취업 준비에 몰입했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 씨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접하기 전의 일이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해 콜센터 운영 및 서버 관리 회사인 CNT테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한 그는 같은해 10월에 정식 직원이 됐다.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회사에서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 씨는 정직원이 된 날 그동안 눈물 나게 부러웠던 명함을 "나 이제 진짜 사회인이야!" 하며 자랑스레 돌렸다. 그는 이렇다 할 '스펙'이 없는 자신이 든든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인턴제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기피현상 해소

"취업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에선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로 엇갈리는 이 숙제를 통쾌하게 해결해주는 게 청년 인턴제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 후배들에게 청년 인턴제를 통해 미래를 시작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의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3만명 규모로 실시 중이다.

인턴 참여 자격은 만15~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까지)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미취업자다. 6개월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대졸자는 배제되지만 고졸 이하는 직장 경력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퍼센트를 8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해 1만5천3백95개 기업에 3만2천7백27명이 인턴으로 채용됐고, 인턴 수료자 1만2천6백46명 중 1만1백21명(80퍼센트)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창직·창업 인턴 참여자 1인당 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가 중소기업 기피 현상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컸다고 평가하고,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위탁 운영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좀 더 효율화하기로 했다.

취업보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원하는 청년이라면 창직·창업 인턴제를 이용해보자. 최고경영자(CEO)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험 부족이다. 창직·창업 인턴제는 한발 먼저 창직 또는 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 직접 몸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현장형 교육이다. 시장 개척, 경영기법 등을 배움으로써 성공적인 1인 창조기업가, CEO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창직 인턴은 창직 희망 분야 전공자, 교육훈련 이수자, 자격증 및 저작권 등의 소유자 중에서 선정하며, 창업 인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등 보유자, 창업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중에서 뽑는다.

창직·창업 인턴 참여자에게는 6개월간 1인당 80만원이 지원되며, 수료 후에는 고용지원센터 내 창업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창직·창업 성공 시에는 장려금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내가 한국의 제임스 캐머런이고, 스티브 잡스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며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



조영철 기자

사혜연 씨는 특별한 '스펙'이 없는 자신이 든든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덕분이라며 후배들에게 인턴제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싶다면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나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학습에 참여해보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수수당이나 학점도 받을 수 있다.

직업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면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기능 인력 양성과정이 좋다. 다기능기술자(학위)과정은 국비 지원으로 저렴하게 훈련받을 수 있고, 기능사(직업교육훈련)과정은 전액 무료에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또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을 이용하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내용을 선택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진로지도부터 취업 알선까지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포털사이트 워크넷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워크넷의 채용기업 수는 10만 개, 채용 예정인원도 23만명을 넘었다.

또 대졸 취업준비생에게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잡영은 대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가고 있다. 특히 구직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온라인 채용지원 서비스인 e-채용마당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잡영의 e-채용마당을 통해 아스템즈에 취업한 전병주 씨는 "모두가 좋다고 몰리는 곳에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면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잡영과 e-채용마당이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

글·이혜련 기자

고용노동부 www.molab.go.kr / 워크넷 www.work.go.kr
잡영 jobyoung.go.kr /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 www.hrd.go.kr
고용지원센터 www.work.go.kr/jobcenter

"오늘은 그늘, 내일은 스마일"

사회적 취약계층 10만 개 일자리 제공·안정적 취업 지원

정부는 서민들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찾아주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직 가장에게 재취업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서민들의 그늘진 삶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1 칠순을 넘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충남 예산군에 사는 주상규(72) 씨도 지난해까지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노인정에서 소일하며 보냈다. 그러던 차에 희망근로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신청서를 낸 그는 군내 공중화장실 시설 정비 사업 일을 하는 '희망근로자'로 선발됐다.

노인이라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쉬운 화장실 청소가 주어졌다. 화장실이야말로 관공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얼굴이라는 신념으로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오랜만에 노동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손수 번 돈으로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희망근로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여럿 사귀었어요. 희망근로 경험은 큰 자랑거리입니다.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고 다시 일어서게 해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2 36세에 뒤늦게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딴 최야성(가명) 씨는 고용센터(전 고용지원센터) 사업 중 하나인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다양한 이력서와 면접 우수사례를 접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

지난 5월 프로그램이 끝나고 자동차 정비업체 다섯 군데에 동시에 이력서를 낸 그는 3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세 곳 모두 면접을 본 후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취업에 성공했다.

"지금도 이력서에 뭘 써야 할지, 면접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단 5일만 시간을 내면 취업 성공이 눈에 보여요."

희망근로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일자리를 얻은 필리핀 출신 레지 엘시소 씨. 경기 파주시 금촌동 중앙도서관에서 그가 어린이들에게 영어 퀴즈를 내고 있다.



동아DB

재정 확대

희망근로사업과 고용센터는 서민들의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구다. 당초 지난해에만 운영할 계획이던 희망근로사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와 고용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시행되고 있다. 원래 사업기간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였으나 스쿨존 안전개선사업,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올해 사업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20퍼센트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희망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월 83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임금의 30퍼센트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의 유통기한은 3개월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1만9백91개 희망근로사업장에 9만5천9백32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보다 생산적인 일자리, 임시 일자리보다는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

이에 힘입어 희망근로자는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2만7천4백92곳), 슬레이트 지붕 개량(2천1백49호), 소기업 취업지원(1천6백2개 기업, 3천6백38명 취업), 농촌 일손 돕기(1만2천 농가, 9만7천명) 등에 투입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왔다.

1만9백여 희망근로 사업장에 9만5천9백여 명 참여

무엇보다 소득이 적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규모 실업 충격을 완화해 고용안정화에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고용률은 1월 56.6퍼센트에서 6월 59.8퍼센트로 늘었으며, 실업률은 1월 5.0퍼센트에서 6월 3.5퍼센트로 줄었다.

최근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름을 바꾼 고용센터는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지급, 진로지도, 기업 지원,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센터가 벌이는 많은 사업 중에서도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고용센터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 1백50퍼센트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백4만원 이하) 가구의 18~6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담과 적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근로의욕과 직업능력을 키워주며 이력서 작성, 면접훈련 등을 실시해 취업 성공률을 높인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7월 15일 수원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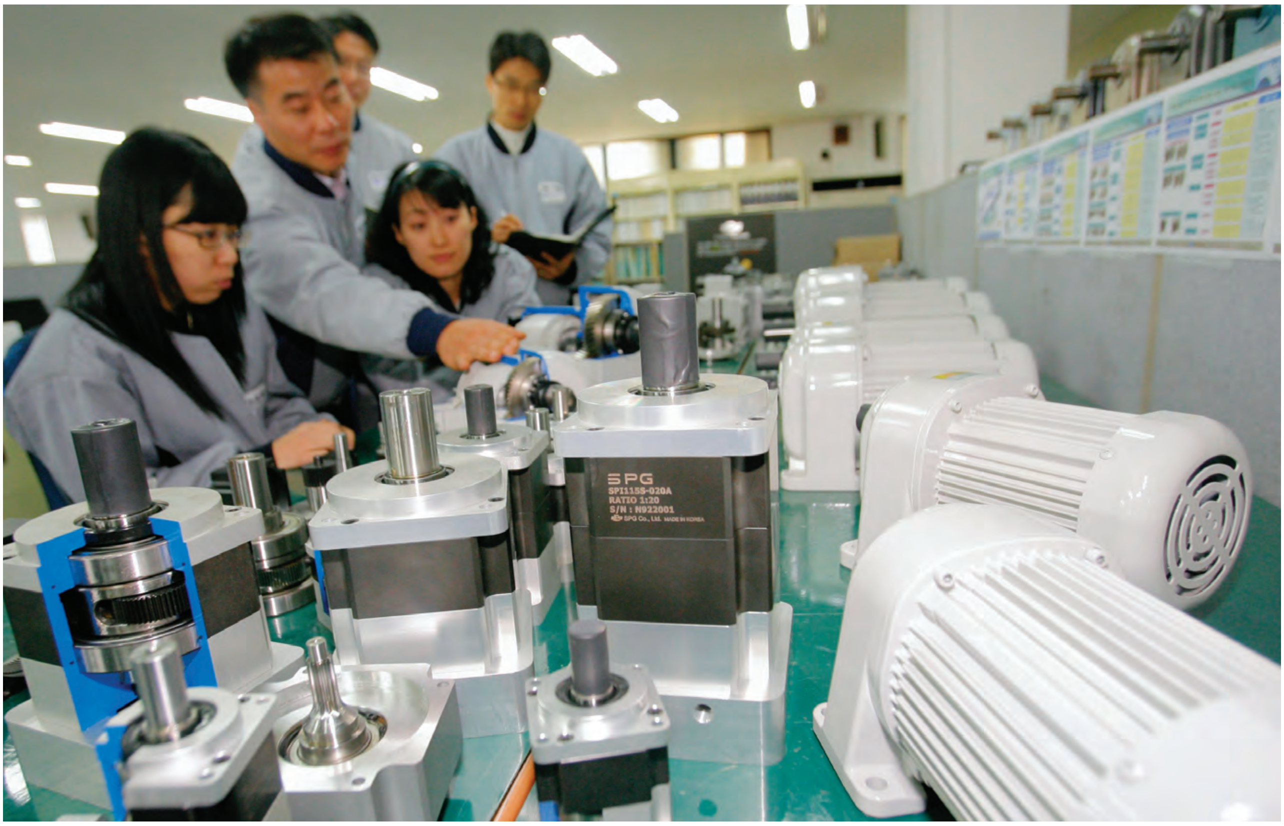
패키지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가하면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주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 4월 말까지 6천9백명이 참여했으며, 취업을 지원한 2천6백90명 중 1천4백79명이 취업 성공의 기쁨을 맛봤다.

정부는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15일 수원시 고용센터와 희망근로사업장인 '화성 주변 숲 가꾸기'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날 이 차관과의 취업상담에서 "정부가 구직 프로그램만 많이 만들 게 아니라 직접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기대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차관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앞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희망근로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재래시장 육성이라는 면에서 성공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와 연계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준다.

서민경제의 축, 소상공인이 일어선다

대한민국 경제의 부지런한 일꾼은 소상공인이다.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이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지원 아래 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들을 지원해온 정부의 노력을 살폈다.

소상공인

"매일매일 신바람이 납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후문에 자리한 찜닭가게 '왕추'는 손님들로 늘 문전성시다. 10년 전 구석진 골목에서 20평 규모로 시작한 이 가게는 최근 50평이 넘는 곳으로 이전했고 예전보다 3배 많은 매상을 올리고 있다. 성공 비결은 보통 찜닭집과는 다른 차별성 때문. 포장 주문 때는 가격의 10퍼센트, 비나 눈이 올 경우 주문하면 20퍼센트를 할인해준다. 또 홈페이지를 운영해 인터넷 주문으로도 찜닭을 판매하고 '언저(닭튀김이나 튀긴 떡사리를 올린 찜닭)' '들고(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찜닭)'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해 손님들이 좋아하는 인기 메뉴를 만들었다.

주인 지영조(46) 씨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공을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부터 애로사항까지 꼼꼼히 살펴준 대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돌린다. 그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예비창업자나 중견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신의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씨와 같은 소상공인은 현재 2백67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쉽게 말해 우리 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현재 국내 사업자 수의 88퍼센트가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운영자도 소상공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다수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와 방침을 마련해 지원해왔다. 그 결과 소상공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전망(BSI)'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최저치인 38.7을 기록한 이후 17개월 만인 올해 6월 87.5를 나타내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체감경기가 회복돼도 여전히 BSI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은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소상공인 일자리 특례보증 제도

일자리 창출 위해 3천억원 지원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제조업은 10인 이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5인 이하다.

일반 보증부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번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려면 농협중앙회 등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는 1퍼센트 이내이며,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시행 시 금리는 연 5~6퍼센트대다. 업체당 5천만원이 최대한도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385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찾아가는 기능장·명장 교육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전문기술·지식 전수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기능장·명장 교육'은 소상공인 가게로 직접 기능장이나 명장이 찾아가 각종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해준다.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교육의 백미는 소수정예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1 대 2 또는 1 대 5로 교육을 실시해 국가에서 인정한 최고 장인들이 각종 전문기술과 지식을 소상공인에게 소상히 알려준다. 교육 분야는 자동차 기술교육, 헤어디자인, 조리기술 전수 등으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예일미용전문학교 등 분야별 기능장 및 명장을 보유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 기능장·명장 교육 ☎ 042-363-7763

소상공인진흥원은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은 7월 초 시작한 꽃가게 창업 패키지 교육.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이론수업·현장실습·사후관리 등 6단계 교육

소상공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창업이다. 그러나 창업을 섣불리 얕보다간 실패의 쓴맛을 보기 쉽다. 정부는 창업 실패를 막고 견실한 소상공인으로 자리 잡도록 2006년부터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소상공인진흥원은 창업적성진단, 이론교육, 현장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 6단계로 구분해 총 80시간에 걸쳐 가르친다. 또한 교육 수료자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은 실전 중심 집중교육과 유망 분야 창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뤄 예비창업자들이 견실한 소상공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교육 ☎ 042-363-7751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생력 키워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술개발력이 뛰어나 해외에서 잦은 러브콜을 받는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은 자금난이다. 기술력이 있어도 이를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87년 설립된 중소기업 세화전자도 비슷한 고민에 시달렸다.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 제품 개발에만 4억원이 소요됐던 것. 다행히 개발만 되면 구매하겠다는 구매처가 나타났고 여기에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자금 2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어렵게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등 기술 경쟁력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살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G

글·김민지 기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4

동네 구멍가게의 스마트한 변신 '나들가게' 탄생

"나들이하듯 선들선들 우리 가게로 오세요"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났던 동네 구멍가게들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중소기업청이 영세 슈퍼마켓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나들가게(스마트샵)'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이 있어 내 집같이 드나드는,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가게'라는 뜻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문을 연 나들가게는 시작부터 매출액과 고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문을 연 나들가게 1호점의 깔끔한 내부. 과거 구멍가게 모습과는 1백80도 달라졌다.

영세 자영업자

서울마포구공덕동에서 '정슈퍼'를 운영해온 서현정(37) 씨에게 지난 5월 3일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다. 한때 유일한 희망이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슈퍼마켓에서 다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8년 전 서 씨는 남편 김선국 씨와 이 동네 주택가의 33제곱미터(약 10평) 남짓한 슈퍼마켓을 인수했다. 이곳은 공덕동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높은 오르막길에 다가구주택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데다 길 폭도 좁아 거주자들 말고는 지나치는 행인이 많지 않다. 거주자들도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장사가 잘되기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서 씨는 당시 빚이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춘 큰길 옆 슈퍼마켓을 인수할 처지가 못 됐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장사가 잘됐다. 슈퍼마켓 공간의 절반을 비디오 대여점으로 활용하면서 매출이 더 늘었다.

"2, 3년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가게에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잘됐어요. '왜 미리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7년부터 경기가 침체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 저소득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경기침체에 따른 지출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급스럽고 깔끔한 시설의 편의점들이 들어서면서 얼마 안 되던 단골손님도 발길을 끊었다. 수입이 급격히 줄자 다시 빚이 늘어난 건 당연지사.

"어지럽던 점포가 편의점처럼 깔끔하게 변했죠"

"윗돌 빼서 아랫돌 괼 수밖에 없었어요. 빚 때문에 신용등급도 9등급까지 떨어졌죠.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니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슈퍼마켓을 정리하기도 어려운 터라 서 씨는 하는 수 없이 다른 돈벌이에 나섰다. 병원의 새벽 근무 간호사

로 취업한 것. 서 씨는 낮에는 가게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병원에서 꼬박 보내야 했다. 그래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담배는 판매가 전혀 안 돼 담배회사 영업사원들이 거래를 끊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맘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 얼굴에 백반증까지 왔지요."

서 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기차를 타고 있는데 플랫폼이나 철로가 보이지 않는 듯한 참담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적도 있다.

그러나 죽으란 법은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 상황에 이른 서 씨 부부에게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 종합소매점포의 균형 발전 여건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샵(Systematically Managed & Advanced Retail Technique Shop · 상호명 땡큐마트)' 육성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

서울 1호점 시작으로 전국 1만 개 육성

매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인 소매 점포에 시설 현대화 등 경영 혁신에 필요한 융자자금(최고 1억원, 대출금리 4.5퍼센트 · 5년)을 저리로 빌려주고 간판 교체 및 리모델링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였다.

자금 여유가 없어 허름한 구멍가게를 그대로 방치해야 했던 서 씨에겐 눈이 번쩍 뜨일 일이었다.

"제가 봐도 죽은 가게였어요. 오죽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취미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 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서 씨 부부는 3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협회에 지원신청서를 냈다. 이후 지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 씨의 가게는 나들가게 대상으로 선정됐고, 5월 3일 서울 1호 나들가게(공덕동점)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좁은 공간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던 생필품들은 편의점처럼 품목대로 깔끔하게 진열됐다. 각종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 있던 가게 외부도 손님들이 거부감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됐다.

곧바로 반응이 왔다. "주인이 바뀌었냐?"며 눈을 크게 뜨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서 씨임을 알아보고는 "축하한다"며 가지런히 진열된 생필품들을 하나라도 더 사간다.

판매와 매출 집계, 회원 관리, 현금 입출금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POS기기(1백50만원 상당)도 중소기업청이 지원해줘 가게에서 일하는 재미가 더 쏠쏠해졌다고 한다. 서 씨는 "우리 가게보다 더 사정이 어려운 소형 슈퍼마켓도 많을 것"이라며 나들가게 서울 1호점인 공덕점이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 씨는 가게를 새롭게 여는 날 청와대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감사의 글을 남겼다.

"나중에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막걸리 한잔 드시러 오셨으면 해요. 희망을 다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3일 나들가게 개점을 알리면서 2012년까지 전국에 1만 개의 나들가게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엔 2천 개 점포가 개장할 예정인데 6월까지 전국에 총 6백 개의 나들가게가 개점했다. 중소기업청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1차 개점 2백 개 점포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98.3퍼센트가 개점 1개월 후 점포의 일일 매출액이 개점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소상공인지원센터 ☎ 1588-5302



중소기업청이 영세 점포 현대화를 위해 추진한 나들가게.
대형 유통회사 계열 편의점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동아DB

정부는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강원 홍천군 내촌면 고추밭을 찾아 농민들과 함께 고추 따는 작업을 하고 있다.

農心으로… 農心으로 팔 걷는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사업 개선 등 생활안정에 앞장

영세 농가나 고령 농민들에게 도시 저소득층 지원 위주의 서민정책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위험을 안고 사는 농민들도 엄밀히 말하면 광의의 서민이다. 이에 정부는 도시 서민을 보는 것과 같은 눈높이로 그들의 생활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민 지원

경남 산청군에 사는 김영환(가명·56) 씨. 30년 동안 사과와 단감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시켰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빠듯하지만 두 아들의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부인이 갑작스레 유방암 선고를 받고, 여기에 팔순 노모의 병환까지 겹쳐 목돈이 자주 들게 됐다. 해가 바뀌고서는 도저히 두 아들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김 씨의 고민을 덜어준 건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였다. 1학기 등록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올해부터 농지원부 등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해져 김 씨는 빠르게 등록금 융자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었다. 2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두 아들은 거치기간(졸업 후 1년·병역기간 포함) 및 상환기간까지 무이자로 등록금을 융자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농민 생활안정 지원대책 중 가장 활성화된 것이 바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제도다. 1994년 처음 실시된 후 꾸준히 지원 규모가 늘고 있다. 올해 1학기엔 농촌(어촌 포함) 출신 대학생 1만5천6백20명에게 5백17억원이 융자됐다.

학자금 융자제도로 농민들 교육비 부담 줄여

지난해 같은 학기(4백억원)에 비해 28퍼센트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2학기에도 1만4천여 명에게 4백83억원을 융자해 줄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서재연 농촌사회과장은 “등록금 연 1천만원 시대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은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는 앞으로도 농민들의 요구에 맞

취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농촌지역 대학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융자 지원 시점이 늦어 1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1학기 융자 신청 시기를 2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소득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는 치명타나 다름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초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피해면적만도 3만8천7백63헥타르(1헥타르는 1만 제곱미터)다. 과수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 15만9백17헥타르의 11퍼센트인 1만6천5백57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할 정도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12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이상기온으로 과수농가 등이 본 농작물 피해를 '동해(凍害)'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6월 말에 피해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재해복구비는 총 2천2백5억원(특별 융자 1천억원 포함)이다. 우선 대파(代播)비용(다시 파종하는 데 드는 종묘 비용)으로 43억원, 농약대금 1백25억원, 생계지원비 1백16억원을 피해농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가구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18가구에 대해서도 총 1천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상기온 따른 재해복구비 2천2백억원 지원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2008년 농작물 15개, 가축 12개 품목에서 올해 농작물 25개, 가축 14개로 늘렸다. 대상 재해도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 질병, 야생동물피해, 화재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 6월엔 적용 대상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로까지 확대했으며, 재배 규모가 큰 딸기, 토마토, 참외, 오이 등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농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나 복지 수준도 향상시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을 7월 23일 공포해 본격적으로 농민 복지 향상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 법률엔 고령 농민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시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양 개선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에서 농민들의 보험금이 현실 소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도 새로이 포함됐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농기계 구입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농기계의 공동 이용과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성이 생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1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주최한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농기계 공동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을 포함해 농가가 보유한 잉여분의 농기계를 임대용 등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고령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부분도 농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법무부는 5월부터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연인원 1백만여 명 가운데 20만여 명을 전국 54개 보호관찰소 관할지역 영세·고령 농가에 배치해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2010 농어촌 대표자 회의

"농어민 스스로도 도전정신 가져야"

"농업인도 스스로 도전정신과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3년 전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 경기 양평군 양수리로 귀촌한 정경섭 씨는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2010 농어촌 대표자 회의'에서 농업인의 의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수원, 펜션, 체험농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업 임원 시절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본인을 '농업인'이 아닌 '농기업가'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정 씨처럼 이날 참석한 농어촌 대표자들은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희망 선언문을 통해 농어촌을 삶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워낭소리나 뱃고동 소리만 울리던 농어촌이 생산, 가공,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산업을 일궈내는 곳으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대표자들이 미래를 개척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동아DB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2010 농어촌 대표자 회의'에서 한 농촌 대표가 소득개선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내집 마련’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

언젠가부터 서민들은 집 한 채 장만하는 데 인생을 건다. 하지만 벌고 또 벌어도, 모으고 또 모아도 이미 가격이 치솟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월세, 전세를 전전하다 사는 재미를 잃는 게 그들이다. 서민 살리기의 핵심으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주거복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사는 정용환(가명·46)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다. 건설 일용직 노무자로 날마다 ‘일당벌이’ 일거리를 찾아나서야 하지만 마음만은 가볍다. 그 이유는 자신 소유는 아니지만 제법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10제곱미터(약 3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아내, 초등학생 딸과 어렵게 살았다. 위축되는 건설경기로 수입이 줄면서 좀처럼 쪽방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리운전 기사도 해보고, 아내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지만 세 가족이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20만원씩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정 씨는 그 누구보다 딸에게 얼굴을 들지 못했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예쁜 방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 변변한 화장실도 없어서 딸이 등교 준비 때마다 싱크대에서 세수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빠로서 심한 자책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던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 보였다. 정부가 2007년부터 실시한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 주거지원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된 것. 이 사업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에 대해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매입 주택 및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다.

5천1백여 가구에 임대주택 지원

임대 신청 자격이 된 정 씨는 정부에 입주 희망서를 제출했고, 입주 자격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영등포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다가구주택 2층에 방 2개가 딸린 40제곱미터의 보금자리였다. 보증금 1백만원, 한 달 임대료는 16만원. 근사한 집은 아니지만 정 씨 가족에겐 궁전이나 마찬가지였다. 정 씨는 “무엇보다 딸의 방이 생겨 너무 기쁘다. 어린 마음에 아빠를 많이 원망했을 텐데 이제야 아빠 노릇을 조금 한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듯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우선 극빈 서민층이 주로 기거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총 5천1백73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 및 재건축 매입·전세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혼모, 홀몸노인 등이 대상. 지난해까지 총 3만20가구를 매입해 임대했으며, 2012년까지 총 5만 가구에 지원된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30퍼센트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도 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주거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아DB

수준이다. 서울지역 50제곱미터 주택 기준으로 보증금 3백 50만원, 월 8만~10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 주택을 마련해 무상 지원하는 제도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 외 지역은 4천만원을 지원한다. 대신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대상 가정에 무료로 임대해주는 것이다. 단 대상자가 만 20세 이후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부담한다.

재정·기금 지원… 보금자리주택 전국에 18만 가구 공급

이러한 사업과 함께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합한 개념의 보금자리주택도 서민들에게 한발 다가섰다.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은 물론, 공공임대(10년 임대), 장기 전세(20년 임대), 장기 임대(30년 이상)가 가능하다. 2018년까지 1백50만 가구(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0퍼센트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서민들로선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전국에 걸쳐 1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중을 높여 10만3천 가구(57퍼센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 서민들의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에너지 절감형으로 유도하고 있다. 자칫 청약 과정에서 '무늬만 서민'인 투기 청약자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10년간의 전매 제한도 뒀다.

국토해양부가 4월에 확정한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영구임대 단지는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으로 건립해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기존 다가구주택, 부도 임대주택 등 7천8백 가구도 추가 매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 개·보수에도 4백 1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생(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상 가구의 자녀 및 1백 퍼센트 이하의 장애인 가구 자녀)에게 저렴하게도 임대할 예정이다. 8월 23일 첫 입주가 시작되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1백만원에 월 3만~12만원으로 보통 대학가의 30퍼센트 수준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보금자리주택.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다.

동아DB



서민복지, 다시 설 수 있는 힘 키운다

자활센터·장애인연금·공교육 강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살펴

서민들이 다시 설 수 있는 힘은 복지에서 비롯된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건강하고 알찬 생활을 돕는 정부의 다양한 서민복지 서비스들을 살폈다.

#1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요."

경기 안산시에 사는 유화순(51) 씨는 요즘 사는 게 즐겁다. 8, 9년 전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아빠 역할까지 해내며 영업직 판매원, 목재공장 직원, 택시기사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일의 수렁 속에서 유 씨는 피폐해져갔다. 그런 그가 삶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지난해 초 동네 자활센터를 우연히 방문하면서부터였다. 자활센터에선 그에게 지역아동센터 돌봄 선생님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잘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통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가도 이유 없이 웃고 떠드는 시간이 즐거워졌다. 유 씨는 예전엔 일만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리며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친엄마' 같은 선생님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는 "자활센터를 통해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IPTV 공부방은 현재 전국 1백12개 지역아동센터에 마련돼 있다.

조영철 기자



유 씨에게 일자리를 안겨주고 지역 아동복지까지 챙기는 자활센터는 서민복지의 기틀을 세워온 일등공신이다. 1996년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백42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복지를 책임진다.

자활주거복지, 돌봄사회서비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자활센터는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 기반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자활센터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복지사업'이란 구호 아래 서민들에게 힘이 돼주는 것처럼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교육' 관련 복지 정책들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특히 저소득 가정일수록 사교육비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가계지출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 학습권 위한 EBS 수능강의 자막서비스 제공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4백57개 초중고교에서 교과종합반, 수준별 맞춤 수업을 운영했다. 운영 1년을 되돌아본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16퍼센트 절감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14.7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요 과목 심층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교'도 균등한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효자'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지난해 방과후 학교의 학생 1인당 한 달 수강료는 평균 2만9천3백47원으로 보통 사교육비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저소득층 학생 39만명에게는 무료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사교육 경감에 앞장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수능교재 가격을 대폭 내렸다. 시중 교재가격의 58퍼센트 선으로 공급해 저소득층 등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또 올 하반기엔 20만1천명에게 교재를 무료로 나눠준다.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EBS는 교육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인터넷 수능강의 최초로 자막 서비스를 전면 제공한다. 1만2천3백 편의 인터넷 수능강의를 대상으로 8월 중 시행되는데 이로써 그동안 인터넷 강의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전국 3천7백여 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복지를 돕는다.
사진은 자활센터 사업 중 하나인 자활 재활용 사업장의 활동 모습.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인터넷TV(IPTV) 공부방도 확대된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IPTV 사업자가 지원해온 이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돌봄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마련된 IPTV는 영어, 수학, 과학 등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나 다양한 시청각교육 자료를 제공해 아이들의 부족한 공부를 무료로 보충해주고 있다.

정부는 서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육·의료 복지정책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유아(0~4세)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5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차상위계층 이하 기구)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임혜성 주무관은 "올해 상반기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은 지난해 12월보다 2만3천명 증가한 81만8천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71만4천명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었다"고 전했다.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5퍼센트 경감

서민 의료비 부담을 더는 건강보험 혜택도 늘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화상 본인부담률을 20~6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했고, 사망률이 높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을 종전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경감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7월1일부터는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돕는 장애인연금이 시작됐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장학재단을 찾은 한 학생이 올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에 관해 문의하고 있다.

대출금리 0.5퍼센트↓ '든든학자금' 신청하세요

학자금

"학교 다닐 때 대출금 상환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서 부모님도 저도 '든든학자금'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출금리가 0.5퍼센트 포인트 내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명희(가명) 씨는 든든학자금의 금리 인하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5.7퍼센트)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내린 5.2퍼센트로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인하한 대출금리를 2학기 학자금부터 적용키로 하고 7월 19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29일까지다.

취업 後 상환 · 가족관계 확인서류 생략 등 편의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에 따르면 대출 신청 첫날인 7월 19일에만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합쳐 총 6천4백여 명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도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는 든든학자금의 장점으로 '취업 후 상환'과 함께 각종 구비서류를 학교나 재단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들면서 "이제 대출금리까지 내렸으니 1학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008년 2학기 7.8퍼센트에서 2009년 1학기 7.3퍼센트, 2학기 5.8퍼센트로 꾸준히 인하해왔다. 이번에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문제점도 개선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험공단과 전용망을 연결해 기존에 약 열흘이 소요되던 소득분위 파악 기간을 이틀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뒤늦은 신청으로 소득분위 파악이 안 돼 일반상환대출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지난 1학기 8만8천명)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한 덕에 한국장학재단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던 가족관계 확인서류(학기당 약 40만 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출 신청 문의가 집중되는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담 인원을 2백명에서 6백명으로 늘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남혁모 사무관은 "초반에는 문의가 폭주하다 대학 등록신청 기간인 8월 중순에 대출 신청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며 "학자금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해두면 한결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 02-2100-6284
학자금포털 www.studentloan.go.kr
장학서비스센터 ☎ 1666-5114



2010 보훈문화상

후보자를 추천하세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보훈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주세요.

01 시상부문

시상부문		수상자격
개인 및 단체	예우증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념사업	추모 · 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 개인 또는 단체
	언론홍보	각종 언론보도 · 홍보활동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교육문화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 · 공헌자의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는데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단, 제대군인 제외)와 각 개별법 등에 따른 보훈단체 제외

02 시상인원 및 내용

- **시상인원** : 5명(부문별 1명)
- **시상내용** : 상패 및 상금 각 1,000만원

03 접수기간

2010. 8. 1. ~ 8. 31. (1개월)

04 접수처

- **보훈문화상 홈페이지(http://bohun.munhwa.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문화일보로 우편접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68번지 문화일보 사업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05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내역 각 1부**
- **공적 증빙자료 1부(별도 양식 없으며, 사본 제출가능)**

※추천서 서식은 보훈문화상 홈페이지(http://bohun.munhwa.com) 참조

06 수상자 발표

국가보훈처 · 문화일보 홈페이지 게시
(2010. 11월)

국가보훈처

| 문의 | 02)2020-5137, 02)3701-5754



"관광자원도 새로 얻는데 마다할 이유 없죠"

계백장군 형상화한 부여보, 지역 랜드마크 역할 기대

충남 부여군 정동리 '기와마을'에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 중인 정하진(48) 씨.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반대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정 씨는 부친이 작고한 후 농지를 물려받아 지난해부터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그의 농지는 금강유역 하천 부지에 속해 있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생계 터전을 잃게 된 그는 이웃 주민들과 4대강 사업 반대 시위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정 씨는 "부여보 주변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처음엔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며 1년 전을 회상했다. 그러던 그가 4대강 사업의 취지를 차츰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먹고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자 지금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정 씨는 "사실 하천 부지는 국가 소유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그런 날이 올 것을 감안해 주민 대다수가 대안사업을 구상 중이었다"고 귀띔했다.

그가 말한 대안사업이 바로 현재 운영 중인 농촌체험마을이다. 가족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사짓기, 물놀이, 전통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묶어서 마을 단위로 운영 중인 사업인데, 현재 기와마을 80가구 중 70퍼센트 이상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촌이라는 환경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된 셈이다.



충남 부여군 정동리 주민 정하진 씨가 농촌체험마을을 가리키며 금강살리기 사업이 또 다른 관광자원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정 씨는 "백제 고유의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부여는 지역 전체가 관광자원"이라며 "앞으로 주변 부소산, 백제문화단지 등을 자전거 길로 엮어 부여 관내 자전거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그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하나의 기회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이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의 관광자원을 덤으로 얻는 셈"이라며 "군 단위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을 정부가 대신 해주니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4대강 가운데서도 금강은 특히 '문화'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다.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 문화, 관광, 역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뱃길을 복원해 문화관광 루트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강살리기의 핵심이다.

황포돛배 타고 낙화암 가는 길, 물 맑아지면 금상첨화

백마강(부여군을 관통하는 금강의 별칭) 하류에 위치한 낙화암은 지금도 황포돛배를 형상화한 유람선을 띄워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 삼천궁녀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일화로 유명한 낙화암은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수로를 이용할 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낙화암을 찾은 관광객 이순임(50), 이춘희(53) 씨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물이 깨끗해지고 강 주변이 정비되면 관광객으로서는 더 좋은 것 아니냐"며 "다만 자연환경이 덜 다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광객 양현돈(51) 씨도 "육로를 이용했는데, 황포돛배를 타고 왔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기왕 시작된 4대강 사업이니만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포돛배 선착장인 '구드레나루터' 인근에서 4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표경혜 씨는 "금강살리기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여는 서천, 공주,



백마강 하류 낙화암의 황포돛배.

논산에 둘러싸인 분지이다 보니 발전이 더뎠던 게 사실"이라며 "금강을 살리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씨는 "앞으로 부여에서 공주까지 뱃길이 연결되고 강물이 더 맑아지면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도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약 30퍼센트 늘었을 만큼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여보가 위치한 백마강 유역은 올가을 열릴 '2010 세계대백제전'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낙화암 건너편에는 수상무대가 펼쳐진다.

이병현 부여군 문화관광과 관광기획계장은 "금강유역에 있는 무령왕릉, 공주박물관, 유적지 터, 한옥마을 등을 관광벨트로 묶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말을 탄 계백장군의 모습을 형상화한 부여보 역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 취지 잘 살렸으면 좋겠다"

금강 세종1공구 현장에서 금남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민원과 보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임홍철(67) 씨. 그는 착공 전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의 선봉에 섰다가 지금은 주민들과 시공사, 정부 간 소통의 매개자가 돼 있다. 그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반대한 건 다만 보 주변 하천 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의 생계 걱정 때문이었다"고 당시 사정을 전했다.

현재 개간비 등과 관련한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고, 지역민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에서 일자리를 우선 배정받아 일하고 있다. 그는 "보상받은 분들은 그나마 양반"이라며 "문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농사짓던 분들인데 이 분들에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얻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집성촌에서 67년째 살아온 임 씨에게 금강은 남다른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하다. 어릴 적 물놀이를 하던 기억을 회상하던 그는 "그땐 지나가면 모래무지가 밟힐 만큼 물이 깨끗했다"며 오염된 물을 가리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당장 생계 터전을 잃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속은 상하지만 4대강살리기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니 지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순리대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재차 금강을 찾았던 7월 19일 부여군개발위원회 소속 지역 주민들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방문해 금강살리기 사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대다수 부여군민은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강의 현실을 모른 채 반대하는 분들에게 현지 방문을 꼭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한국의 스티브 잡스에 도전하세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 개최

흔히 '데이터베이스(DB)'라고 하면 잔뜩 쌓인 자료나 복잡한 수치를 떠올린다. 물론 그 역시 DB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DB는 정형화된 것들이 아니다.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인터넷 정보 등 마치 물과 공기처럼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한다. 무궁무진한 DB의 세계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유주완(19) 군은 예전에 버스 막차 시각을 몰라 불편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응용프로그램)인 '서울버스'를 개발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실시간 버스 배차 현황과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앱은 애플스토어에 오르자마자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아이폰 이용자 50만명 이상이 이 앱을 내려받았고, 최근 안드로이드폰용으로도 개발돼 '유용한 TOP 50 앱' 중 당당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학생 이민석(27) 씨가 만든 앱도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필수 아이템이다. T스토어에 올린 '지하철 알리미'로, 지하철 도착역을 설정하면 도착역에 즈음해 경고음이 울려 깜빡 잠이 들더라도 도착역을 지나치지 않고 깨워준다. 이 씨는 이 앱으로 2개월 만에 4천5백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앱 개발자로서의 길도 걷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 1백만 시대를 돌파하면서 스마트폰 앱 개발은 '21세기의 노다지'라 불린다. 그러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절실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서울버스' '지하철 알리미' 같은 앱은 이런 공공이나 민간 DB의 적극적인 활용이 뒷받침된 결과물이다.

DB산업, 성장률 11퍼센트 넘는 신성장산업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아이디어와 정보기술(IT)로 일반 국민도 쉽게 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앱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경기도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공공정보 2백70여 종과 민간 DB 40여 종을 개방해 이를 활용해 만든 앱이나 앱 개발 기획서를 받는다. 대한민국 앱 공

모전(koreaapps.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 정보, 여행사 모두투어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패키지 여행상품 등 공공과 민간 DB의 무궁무진한 앱 소스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앱 개발의 핵심은 DB다. DB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이번 공모전을 주관하며 대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선영 팀장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시작된 공모전은 현재 60개 이상의 작품을 받았으며, 오는 9월 10일 마감까지 수많은 앱 개발 기획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1993년 DB 품질평가 및 컨설팅과 교육 등 다양한 DB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지난해 6월 '원(院)'으로 승격된 것이다. 기존 센터가 해오던 업무들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DB산업 선진화'라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앱 개발 지원하는 '대한민국 앱 공모전' 개최

DB산업은 지난해 시장 규모가 8조6천억원에 달하고 성장률이 11퍼센트를 넘는 신성장산업 분야다. 과거 DB의 생명이 단순히 데이터 구축과 보관에 머물렀다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는 DB의 검색과 활용, 분석에 따라 그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DB산업은 크게 ▲DB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DB 활용을 돕는 컨설팅 분야 ▲DB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솔루션 분야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DB 서비스 산업이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위에 서 있고 컨설팅이나 솔루션 분야도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DB산업 관련 분야의 발전에 힘쓰면서도 국민의 실생활에 DB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DB 알림이'로서의 몫을 다하고 있다. 이번 앱 공모전과 같이 공공과 민간 DB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국민이 DB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

개요 | 국내에서 제작, 유통 중인 정보(DB)를 이용하여 모바일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앱 개발 및 기획물 공모 **분야** | 앱 개발 및 기획 분야 **응모 자격** | 학생, 일반인, 팀 **공모 기간** | 6월 14일~9월 10일 **응모 방법** | 홈페이지(www.koreaapps.or.kr) 접수 **시상 내용** | 총상금 1억1천만원(장관상 및 도지사상 등 25종) **발표** | 10월 말(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 **문의** | koreaapps@kdb.or.kr

한응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

"DB는 무한한 가능성 지닌 재화"


조영철 기자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에서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월까지 접수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홈페이지에 2만3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6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초대 원장이 된 한응수(56·사진) 원장. 최근 그가 트위터(@eungsoohan)에 올린 앱 공모전 홍보 글이다. 정부의 홍보통(通)으로 살아온 그는 이제 트위터와 블로그로 국민들과 소통하며 DB 알림이를 자처하고 있다.

'DB'란 용어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생소하다. 좀 더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DB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재화(財貨)'다. DB를 잘 활용하면 파생상품처럼 다양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점차 단일 DB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여러 가지 DB를 융합한 '매시업(Mashup)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다. 앞으로 DB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DB산업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다.

2012년까지 추진할 업무들로 '지식강국 실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B산업 경쟁력 강화 ▲DB유통 활성화 ▲DB전문인력 양성 ▲DB품질 혁신 등 4가지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이 중 DB산업이 성장단계에 있다 보니 DB산업과 관련한 각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29일 DB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DB산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DB 서비스, 컨설팅, 솔루션 등 3개 분야의 60개 이상 기업과 연구단체, 기관이 참여해 DB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열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앱 공모전이 열려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DB 활용의 대안으로 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공DB는 정부 예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국민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정부에선 이렇듯 DB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민간에서는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사용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DB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 앱 개발은 앞으로 발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본다.

공공, 민간 부문 DB의 원활한 활용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DB의 품질, 정확성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과거에는 DB를 구축하고 저장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볼 절차도 없었다. 따라서 DB품질향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DB를 가진 기관이나 단체의 품질진단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DB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DB산업 발전을 위해 진흥원이 거는 기대가 있다면.

다양한 DB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특히 이번 앱 공모전에서 보다시피 모바일 서비스를 배경으로 DB산업이 크게 육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DB의 생명은 구축이나 보관이 아닌 검색과 활용에 있다. DB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DB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애쓸 것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얼 글로벌 네트워크 만들 것”

1백여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 참가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2010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 참가차 서울에 모였다.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에서 온 1백여 명의 ‘글로벌 코리안’들은 7월 26일부터 나흘간 모국의 발전상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정체성을 찾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 세대의 헌신으로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을 비롯해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가 탄생했지만 성공한 개개인은 한인사회와 자꾸 멀어져 안타깝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의미의 한인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 대회가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폭스TV 앵커 출신인 윤경복 한미커뮤니티재단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국적도 제각각인 난생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만났지만 한인이라는 공통분모만으로도 이들은 끓어오르는 진한 동포애를 교감하는 듯했다.

7월 26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막한 2010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의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법조, 언론,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을 초청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 인재 활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행사로, 1998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23개국에서 1백여 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윤경복 사무총장을 비롯해 일본 전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 중의원의 국제담당 보좌관을 지낸 김숙현 일본 도호쿠대 법학부 교수,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4년 동안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탈출(Escaping North Korea)〉을 쓴 김 마이크, 호주 인권위원회 선임 조사·중재담당관 이현주, 유니세프 사회정책·교육담당 컨설턴트 이세나 씨 등이 참석했다.

“정보 공유하며 동포사회 네트워크 발전하길”

또 8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Big Rock Partners, LLC’의 투자결정 담당자 김 베넷, 미국 보잉사의 야심작 ‘보잉 787 그림라이너기’의 제작팀 일원인 정선민, 포르쉐 아시아태평양 모터스포츠 담당 최세원,

조영철 기자





▲7월 27일 2010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인 차세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인 차세대들이 7월 28일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선조들의 생활상을 체험하고 있다.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2010 세계 한인차세대 대회 개막식에서 태극기와 부채를 들고 즐거워하는 한인 차세대 리더들.

2008 미스아시아 USA 1위에 오른 미국의 유다이앤 씨 등도 각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인재로 눈길을 끌었다.

한국말이 서툰 김 베넷 씨는 "한국은 무척 아름답고 놀라운 나라"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국회의원 비서로 발탁됐던 김숙현 교수는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차세대 인재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주준비은행 선임 분석전문가인 인치형 씨는 "네 살 때쯤 호주로 이민을 가 지금까지 열 번 정도 한국에 왔는데 올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는 고국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대회 참가자들과 앞으로도 꾸준히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다지고 싶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7월 29일까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한인 차세대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며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의 뜻을 다졌다. 판문점과 서울 남산 한옥마을을 견학하고 막걸리 담그기, 한국음식 만들기 같은 전통문화도 체험했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국내 젊은 경제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 모국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회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 김경근 이사는 "올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안배에 역점을 두고 각 분야 차세대 리더를 골고루 초청해 모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굳건히 한 점"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한 한인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해 활발히 활동할 때 한국 역시 지금보다 더 우수한 국가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며 "차세대 리더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리더들의 시너지 효과는 모국에 큰 힘"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은 "거주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참가자들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모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는 한국계 첫 캐나다 상원의원 연아 마틴(김연아), 뉴질랜드 첫 한인 국민당 의원 멜리사 리(이지연) 씨 등이 참가했다. 이 밖에 역대 주요 참가자로는 아시안 최초의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인 마크 김(김선엽),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시장 준 최(최준희), 미국 교통부 차관보 데이비드 김(김성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의원 샘 윤(윤상현) 씨 등이 꼽힌다. G

글 · 김지영 기자

印尼 찌아찌아족 한글 실력 “놀라워라”

한글 사용 1년… 전통·문화 지키는 도구이자 더 나은 삶 꿈꾸는 매개체

가장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는 한글을 인도네시아 부톤 섬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과 나눠 쓴 지 1년이 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찌아찌아족의 한글 사용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그동안 찌아찌아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바우바우시의 제6고등학교 컴퓨터실에서 경북대 학생이 찌아찌아족 학생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

보급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은 이미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7월 17일 오전 한글로 된 교과서로 찌아찌아어를 가르치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바우바우시의 까루야바루 초등학교를 찾았다. 도심에서 승합차를 타고 20여 분 달려 찌아찌아족이 사는 소라올리오 지구에 도착하자 유일한 찌아찌아족 한글 교사인 아비딘 씨(33)가 만들었다는 한글 도로표지판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훈민정음학회에서 파견 나온 한국인 교사 정덕영(49) 씨는 올해부터 한글 교육을 받을 이 학교 4학년 A, B반 학생들에게 첫 수업을 했다.

학교 건물 왼편에 있는 50제곱미터 남짓한 넓이의 작은 교실로 들어서자 정 씨가 인도네시아어와 찌아찌아어를 섞어가며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44명의 학생은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써나가는 정 씨의 손끝을 주시했다.

책걸상이 부족한 탓에 의자 2개를 붙여 3, 4명의 학생이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정 씨가 쓴 글자를

노트에 꾹꾹 눌러 받아쓰는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열 살짜리 아이들답지 않은 열정이 엿보였다.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한글로 된 이름표를 만들기도 했다. 대부분은 한글을 처음 접한 탓에 정 씨와 취재진이 일일이 이름을 써줘야 했지만 예닐곱 학생들은 A4용지를 3등분한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냈다.

'이안'이라고 쓰인 이름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정 씨의 도움을 기다리는 옆자리 학생들 사이에서 의기양양해하던 한 소녀는 "이웃에 사는 사촌 언니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자랑했다. 자신의 이름표를 일찌감치 만들어놓고 급우들을 도와주던 누르살마(10) 양은 "5학년인 동네 오빠의 교재를 보고 혼자 한글을 깨쳤다"고 말했다.

정 씨는 "1년간 한글을 배운 5학년 학생의 99퍼센트가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완벽히 표기하고 읽을 줄 안다"면서 "한글이 워낙 배우기 쉬워 '반나절 문자'라고들 한다.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며 빙그레 웃었다.

1년간 배운 5학년 학생 99퍼센트 한글 읽을 줄 알아

이틀 뒤인 7월 19일에는 한글과 함께 한국말도 가르치는 제6고교 2학년 교실을 찾았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키가 큰 학생이 교실 앞으로 나가 한국말로 "준비됐나요?" 하고 외치자 학생들은 "파란 하늘 하늘색 풍선은 우리 맘속에 영원할 거야~"로 시작되는 가수 god의 노래 '하늘색 풍선'을 부르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발음은 1년간 배운 실력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했다.

자신을 "까루야바루에 사는 누리안또"라고 한국말로 소개한 키 큰 학생은 취재진을 학교에서 3킬로미터쯤 떨어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더 익히려는 듯 집으로 향하는 내내 쉴 새 없이 서툰 한국말로 질문을 던졌다.

그의 방에 들어서자 '한국에 가고 싶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싶어요'라고 쓰인 메모지들이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나무 벽 곳곳에 붙어 있었다. 좁은 방 안에는 어두운 밤에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불빛이 약한 전구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는 이 방에서 같은 반 친구인 삼시르에게서 빌린 사전과 얼마 전 다른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은 교재로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어렵게 느껴져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삼시르가 지난겨울 서울시 초대로 한국에 다녀온 뒤 자랑을 늘어놓아 마음을 바꾸게 됐다는 사연도 들려줬다. 그의 꿈은 언젠가 한국 여행업체에서 일하는 것이다. G

글 · 안홍석(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현지 1호 한글교사 아비딘 씨

"한글로 문화 보전하게 돼 자부심 크다"



연합

찌아찌아족 1호 한글교사인 아비딘(왼쪽) 씨가 한국인 한글교사 정덕영 씨와 함께 찌아찌아족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

찌아찌아족 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비딘(33) 씨는 "한글을 가르쳐서 우리 문화를 보전할 수 있게 돼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고교 영어교사로 일하던 2008년 겨울 훈민정음학회와 바우바우시의 주선으로 서울대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찌아찌아족이 밀집한 소라올리오 지구 학교 두 곳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글 수업 분위기는 어떤가.

아프거나 집안일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배우려는 열의가 무척 뜨겁다. 바우바우시의 다른 종족 중에도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글이 찌아찌아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1년 전까지만 해도 찌아찌아어는 문자가 없어 역사는 물론 전래동화조차도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한글을 통해 비로소 이를 복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초청을 받았던 학생들이 돌아와 서울의 좋은 인상을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한글과 한국말을 배우려는 욕구가 한층 커졌다.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는 바우바우시와 찌아찌아족이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은.

내 한국어 실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2년 전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4단계 중 2단계까지 마쳤다.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을 다시 찾아 4단계까지 이수해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김서방, 우리 딸 부탁해" "엄마, 한국서 잘 살게요"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 최초 화상 가족상봉

"김서방, 김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해."

"엄마, 우리 걱정 말고 잘 지내세요. 여기서 너무너무 잘 살아요."

7월 29일 강원 인제군 백담 정보화마을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베트남 현지 가족 간의 화상상봉이 이뤄진 것.

이번 화상상봉에는 다문화가족 9가구가 참여해 각 가정당 20여 분씩 부모, 친지와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측 화상상봉 장소인 하노이 정보접근센터에는 레남탕 베트남 정보통신부 수석차관, 박석환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이 참석해 화상상봉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부모들을 격려했다.



7월 29일 강원 인제군 백담 정보화마을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아홉 가족이 베트남의 부모 형제들과 화상상봉을 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기순 인제군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딘티검능 씨, 트란 트롱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베트남 신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가 다문화가족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없이 우리들만의 대한민국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때"라며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들은 우리의 며느리이자 딸이다. 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 위한 화상상봉 지원 확대"

이에 대해 화상상봉에 참여한 누엔티타오(24) 씨는 "우리는 정서적으로 베트남인이지만 한국에 와서 결혼한 이상 한국에 터를 잡고 한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국 남편들에게도 서로 간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문화가족이라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4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다문화가족 화상상봉으로, 행정안전부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다수 거주하고 상봉 희망자가 많은 지역인 인제군을 선정해 거점 정보화마을에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베트남에 거주하는 이들의 부모들이 하노이 정보접근센터 및 호찌민 과학기술부 산하센터에 가서 상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정보화마을을 활용해 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상시적으로 화상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순 인제군수는 "이번 화상상봉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행사를 우리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상상봉을 실시한 가족 중 누엔티타오 씨 가족의 사연은 다문화가족을 다루는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KBS 2TV 〈희망릴레이 우리는 한가족〉을 통해 8월 하순께 방영될 예정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성우 문선희 씨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열정 느껴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오히려 이들에게서 열정과 에너지를 받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7년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성우 문선희(42) 씨는 장기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국에서 화려한 모습만 보다가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있다 보면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이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겸손해했다.

문 씨가 이 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서울대가 제작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재 녹음에 참여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문 씨는 서울대에 개설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까지 이수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2004년부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성우이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있어 매 주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주중 철야 근무로 시달리다 단 하루 쉬는 일요일에 나와 열심히 수업을 듣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힘들다는 생각이 사라진다고 그는 말한다.

“배우는 게 즐겁다”는 외국인 근로자 보며 피로 잊어

문 씨는 주말에 집이 있는 경기 김포시에서 센터까지 먼 길을 달려와야 한다. 자신의 자동차에 제자 중 한 명과 동승한다. 그 외국인 근로자가 사는 곳은 김포에서도 한참 더 가야 하는 강화도 인접 지역. 센터에 가려면 무려 2시간 30분가량 걸리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와 ‘카풀’을 하기 시작했다. 먼 거리지만 “한국어 배우는 게 즐거워요”라고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문 씨는 피로도 잊는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표현들을 재미있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자신이 성우인 만큼 발음에도 중점을 둔다. 문 씨는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영어를 하려는 한국인들이 많아서인지 기본적인 한국어 이상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며 “아시아



연합

7년째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성우 문선희 씨.

지역에서 온 근로자들은 생활수단으로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어서인지 더 감사하고 배우는 모습도 예쁘다”고 했다.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는 “외국인 근로자 중 많은 이들이 자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라며 “이들에겐 타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겠다는 용기와 열정이 넘친다”고 말했다.

문 씨는 우리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을 벌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이들을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달라고 전했다.

1990년 KBS 22기 공채로 입사한 문 씨는 1993년 KBS 라디오 연기대상 신인 여자 연기상을, 2007년엔 최우수 여자 연기상을 받았다. 애니메이션 ‘카드캡터 체리’의 유체리 역, ‘슬램덩크’의 이한나 역이 대표작이다. G

글 · 구정모(연합뉴스 기자)



동아DB

1979년 서말구 전 육상 단거리 대표팀 감독이 세운 1백미터 한국기록(10초34)을 31년 만에 경신(10초23)한 한국 육상의 희망 김국영의 역주.

샛별들! 한국 육상을 부탁해

1백미터 한국기록 깬 김국영, '여자 황영조' 염고은 등 두각

**한국 육상에도 봄은 오는가.
31년 묵은 남자 1백미터 한국기록이 19세의 겁 없는 신예에게 깨지고 15세의 여자 마라톤 유망주가 나타나는 등 모처럼 한국 육상에 희망의 싹이 돋고 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던 지난 6월 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백미터 예선. 이제 열아홉 살인 김국영(안양시청)이 10초31을 기록해 1979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서말구(55) 전 단거리 대표팀 감독이 세운 한국기록(10초34)을 0.03초 앞당겼다.

김국영은 준결승에서 10초23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본인의 기록을 다시 0.08초 줄이며 10초2대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월드컵이라는 지구촌 축제에 밀려 언론의 조명을 예상보다 크게 받진 못했지만 김국영의 한국기록 경신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31년간 난공불락이던 기록을 깨면서 국내 단거리 선수에게 '이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 당시 준결승에서 임희남(26·광주시청)도 10초32, 여호수아(23·인천시청)도 10초33으로 10초34의 벽을 넘었다.

남들 두 걸음 뛸 때 세 걸음 뛰는 '아시아형 주법'으로 달려

김국영이 키 1백72센티미터, 몸무게 68킬로그램으로 단거리 선수로는 체격이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10초34의 벽을 넘었다는 사실도 한국 육상에 교훈을 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국 흑인들처럼 키가 크고 우람한 근육질 선수만이 단거리 기록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김국영은 남들이 두 걸음 뛸 때 세 걸음을 뛰는 '아시아형 주법'으로 달린다. 그는 1백미터를 48보에 달린다. 1백미터 세계기록(9초58) 보유자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41보에 달리는 것에 비해 많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동안 미국 흑인들처럼 다리를 높게 올려 길게 뛰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있었다.

1991년 4월 19일 태어난 김국영은 안양 관양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해 3학년 때인 2006년부터 1백미터에

서 두각을 나타났다.

이듬해 평촌정보산업고로 진학한 뒤 고교 일인자로 자리를 굳히며 주목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대한육상경기연맹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드림팀 프로젝트’로 실시한 단거리 강화훈련을 잘 받아 31년 만에 한국기록을 경신해 1억원의 포상금을 거머쥐었다.

5월 10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여고부 5천미터에서는 열다섯 살 소녀 염고은(김포 제일고)이 혜성같이 나타났다. 15분38초60을 기록, 2005년 이은정(삼성전자)이 세웠던 한국기록(15분41초67)을 3초 이상 경신했다.

키 1백52센티미터, 몸무게 33킬로그램의 가냘픈 몸매에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선수가 5천미터에 처음 도전해 한국신기록을 세워 한국 육상계를 놀라게 했다.

마라톤계는 염고은을 ‘여자 황영조’로 대성할 재목이라 평가하고 있다. 염고은은 고무공처럼 통통 튀는 주법을 구사한다. 보통 선수들이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무릎을 크게 올리지 않고 사뿐사뿐 달리는 것과 다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스피드가 중요한데 가볍게 사뿐사뿐 달리는 것으론 경쟁하기 힘들다. 여자 마라톤 한국기록(2시간26분12초) 보유자 권은주(제주시청)가 1997년 등장할 때 보여준 주법도 통통 튀는 주법이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여자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다카하시 나오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노구치 미즈키 등 일본 선수들도 통통 튀는 주법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13분42초98로 5천미터 한국신기록 세워

염고은은 경기 금파중학교 시절 1천5백미터와 3천미터로 스피드를 잘 다져놔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 지난해 3천미터에서 9분30초31로 여중부 신기록을 19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무리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키우면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마라톤 사관학교’ 건국대의 백승호(20)는 7월 17일 일본 홋카이도 아바시리 시에서 열린 호쿠렌 디스턴스 챌린지대회 5천미터에서 13분42초98을 기록해 2006년 지영준(코오롱)이 세운 한국기록(13분49초99)을 7초01 앞당겼다.

박봉고(19·구미시청)는 2백미터와 4백미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2백미터에서 21초06, 4백미터에서는 46초16의 고등부 최고기록을 세웠다.

5월 19일 열린 대구국제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46초23으로 7위를 했지만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해 3백미터까지 압도적으로 1위로 달리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신예들의 등장은 분명 한국 육상에 희망을 던져준다. 한국 육상은 그동안 저변이 얇은 토양 속에서도 유망주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잘 관리하지 못해 사라지게 했다.

마라톤의 경우 ‘제2의 황영조’로 평가받던 엄효석과 전은회 등이 전국체전용 선수로 전락했다. 단거리 선수 중에도 중고교 시절 두각을 나타낸 기대주들이 어느 순간 전국체전용으로 변했다.

전국체전은 육상에 있어 ‘양날의 칼’이다. 국내 대표적 비인기종목인 육상으로선 시도 대항전인 전국체전이 존재함으로써 선수들이 지방자치단체 팀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변이 얇아 선수는 없고 팀은 많아 영입 경쟁이 심하다 보니 전국체전에서 입상(6위)만 해도 수천만원씩 받게 되는 현실은 선수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

동아DB



‘여자 황영조’ 등장. 15세 나이로 여자 5천미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워 육상계를 놀라게 한 염고은.

잘나가던 선수가 갑자기 사라지면 열에 아홉은 전국체전용인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이 전국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내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아 유망주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선 국제대회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육상은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다. 마라톤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육상연맹이 내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종목별로 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을 시키고 있어 희망을 품어도 좋을 듯하다. 다만 이 프로젝트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나온 반짝 정책은 아니어야 한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지나가는 일회성 행사지만 한국 육상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 G

글 · 양종구(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소박하고도 정감 넘치는 벽화들로 가득한 동피랑마을.
▶통영 시내와 미륵도 사이 좁은 바다 밑을 가로지르는 해저터널.

'한국의 나폴리'

島島한 자태마다 예술가의 혼 스며들다

한려수도의 쪽빛 바다를 껴안은 통영은 미항(美港)이다. '한국의 나폴리'라는 수사가 빠지지 않을 만큼 통영항 일대의 풍경과 정취는 아름답다. 통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항(藝港)으로도 유명하다. 통영항 북쪽에 불끈 치솟은 여항산의 북포루나 동호항 옆의 남망산공원 팔각전망대에 올라서면, 아무리 가슴 메마른 사람도 감수성이 저절로 용솟음칠 만큼 서정적인 통영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과 탁월한 서정미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깃발〉의 시인 유치환과 극작가 유치진 형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꽃〉으로 유명한 시인 김춘수와 대표작 〈봉선화〉로 잘 알려진 시조시인 김상옥,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화가 전혁림 등을 낳았다.

통영은 임진왜란 이후 오랫동안 삼도수군통제영이 자리했던 군항(軍港)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에 처음 설치됐던 삼도수군통제영의 초대 통제사는 이순신 장군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거제, 여수 등으로 옮겨졌던 통제영은 1604년에 다시 통영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통영에는 세병관, 충렬사, 착량묘 등과 같이 옛 통제영이나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가 여럿 남아 있다.

세병관 주변 복원공사 통해 옛 모습 드러내

통영 곳곳에 산재한 충무공과 옛 통제영의 자취도 더듬어 보고, 통영이 낳은 예술가들의 숨결도 느낄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가 최근 개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생태 탐방로 중 하나인 '토영 이야~길'이 그것이다.

'토영'은 통영 토박이들이 통영을 일컫는 사투리 발음이



통영의 대표적인 문화마당이자 쉼터인 강구안의 풍경.

고, '이야'는 언니나 형을 부를 때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때 애칭으로도 쓰이는 통영 사투리다. 게다가 긍정적 의미가 내포된 감탄사이기도 하다.

토영 이야~길은 두 개 코스로 나뉜다. 1코스에서는 옛 통제영터를 중심으로 한 통영 시내 고샅길과 거리를 두루 섭렵하면서 여러 예술가들의 자취와 문화유적을 살필 수 있다. 통영운하 건너편에 위치한 미륵도 북부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는 2코스는 바닷길, 산길, 마을길 등을 걸으며 박경리, 전혁림 등 예술가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1코스를 걸어봤다. 1코스는 완벽한 도심문화 탐방로라는 점에서 기존 코스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 한복판을 출발해서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순환형 코스다.

1코스는 거북선이 정박해 있고 충무김밥집들이 늘어선 강구안의 문화마당에서 시작된다. 통제영 시절에 병선(兵船)이 정박했던 곳이어서 '병선마당'으로도 불린다.

길은 처음부터 미로 같은 골목과 사통팔달로 뻗은 거리를 종횡무진하며 이어진다. 아직 이정표나 안내지도조차 없어 목적지의 순서대로 현지 주민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설령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대체로 목적지는 1백 미터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동양 최초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통영 해저터널

강구안 문화마당 건너편의 버스정류장 옆에는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 〈꽃〉을 새긴 시비가 서 있다. 충무김밥집 거리를 지나자마자 금세 초정거리에 들어선다. 시조시인인 초정(艸丁) 김상옥의 생가가 있던 곳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초정거리에서 큰길을 건너면 이내 청마거리다. 그곳에 청









1 통영 도심에 자리 잡은 중앙시장 내에 남아 있는 대장간.
2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새긴 그림판이 박혀 있는 통영 거리.
3 바삭한 껍질과 고소한 팥소가 조화된 오미사꿀빵.

마 유치환이 정인(情人) 이영도에게 무려 5천여 통의 편지를 붙였다는 통영 중앙동우체국이 있다. 우체국 앞에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로 시작되는 청마의 시 〈행복〉을 새긴 시비가 세워져 있다.

청마거리가 끝날 즈음 만나는 사거리 한 모퉁이에는 '통영 문화동 벅수(중요민속자료 제7호)'가 서 있다. 주민들이 마을의 재앙을 막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1906년에 세웠다고 한다. 돌벅수 앞 비탈진 길을 조금 오르면 세병관 입구다.

정면 9칸, 측면 5칸 규모의 세병관(국보 제305호)은 옛 통제영 객사로 쓰인 건물이다.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거대한 위용이 인상적이다. 경복궁 경회루, 여수 진남관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목조 건축물로 손꼽히는 세병관의 현판 글씨는 한 자의 높이가 무려 2미터에 이른다. 세병관 주변의 많은 관아 건물과 통제영성은 모두 없어졌다가 최근 대대적인 복원공사를 통해 하나둘씩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병관 앞에는 통영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통영향토역사관이 있고, 위쪽에는 옛날 통제사의 집무실이던 운주당이 있다. 세병관 서쪽 간창골에는 오래된 우물과 근대문화유산 건물인 통영문화원이 있다.

통영문화원에서 서문고개를 넘고, 박경리 생가와 두석장 김덕룡의 옛집, 윤보선 전 대통령 부인 공덕귀 여사가 살았던 곳을 차례로 둘러본 다음 충렬사(사적 제236호)에 도착한다.

통영시 명정동 산비탈에 자리 잡은 충렬사는 충무공을 모신 사당이다.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지 8년 뒤인 1606년 제7대 통제사이자 충무공의 부하였던 이운룡이 왕명에 따라 세웠다. 그 뒤로 통제영이 폐지될 때까지 2백91년 동안 매년 봄과 가을에 통제사의 주관 아래 제사가 올려졌다.

충렬사 경내 유물전시관에는 충무공의 전공을 높이 산 명나라 신종이 보낸 팔사품(보물 제440호)이 전시돼 있다. 팔사품은 도독인, 호두령패, 귀도, 참도, 독전기, 남소령리, 홍소령기 등 8종 15개의 군의장물(軍儀仗物)로 구성돼 있다.

충렬사 앞에는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정당샘이 있다. 조선 현종 11년(1670년)에 제51대 통제사 김경이 충렬사의 제향에 쓰기 위해 판 우물이다.

위쪽 것은 일정(日井), 아래쪽 것은 월정(月井)이라고 부른다. 두 샘의 일(日), 월(月) 자를 합쳐서 '명정(明井)샘'으로도 불린다. 지금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지만, 상여가 가까이에 지나가거나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에는 물빛이 저절로 탁해진다고 한다.

담·지붕 정감 넘치는 벽화로 가득한 동피랑마을

정당샘에서 통영 해저터널로 가는 길에는 왕명으로 세워졌다는 함안 조씨 정문(旌門), 1917년 통영에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했던 자리인 전기불터, 서피랑 입구의 옛 통제사 순찰길, 통영의 대표적 간식거리인 오미사꿀빵, 옛 통영군청 건물이자 근대문화유산인 페스티발하우스, 윤이상기념관이 있는 도천테마공원 등을 두루 거치게 된다.

동양 최초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해저터널인 통영 해저터널은 통영 시내와 미륵도 사이의 좁은 물목인 착량의 바닷속을 가로지른다. 임진왜란 당시 당포해전에서 참패한 왜선들이 이곳을 물길로 착각하고 들어왔다가 배가 갈 수 없게 되자 급히 땅을 파고 물길을 내어 도망쳤다는 곳이다. 그래서 '판데목(착량·鑿梁)'이라고도 하고, 왜군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던 곳이라 해서 '송장목' 또는 '송장나루'라고도 불린다.

일제는 자신들의 선조들이 죽은 물목 위로 조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해저터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길이 4백61미터, 너비 5미터, 높이 3.5미터 규모의 이 해저터널은 1927년 5월부터 5년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이

터널은 한동안 미륵도와 통영 시내를 잇는 유일한 교통로로서 사람과 차량이 오갔으나 1967년 충무교가 완공된 뒤로는 인도로만 활용되고 있다.

착량 인근 언덕바지에는 충무공의 여러 사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착량묘(鑿梁廟)가 있다.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사망하자 이듬해인 1599년 그의 충절을 잊지 못한 통영 주민과 수군들이 초당을 지어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지금도 해마다 충무공의 기일(忌日)인 음력 11월 19일에는 기신제를 올리고 봄과 가을에는 향사를 봉행한다.

착량묘를 둘러본 뒤 수산물이 풍부한 서호시장, 강구안의 병선마당, 화가 이중섭이 1953년 통영에 머물 당시 작품 활동을 했던 곳과 바다 전망이 좋은 남망산공원, 김춘수 생가와 내력 깊은 우물인 통새미를 지나면, 요즘 통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급부상한 동피랑마을에 들어선다.

동피랑마을의 골목과 담, 지붕에는 소박하고도 정감 넘치는 벽화들이 가득하다. 그 벽화가 철거될 처지에 놓인 달동네를 살려냈고, 이제는 날마다 수백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통영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동피랑마을의 골목길을 쏘다니며 따뜻한 인정을 나누고 빛바랜 추억을 되살린다.

동피랑마을 아래 중앙시장을 가로질러 다시 강구안 문화마당으로 들어서면 탐험 같았던 토영 이야~길 1코스의 알차고도 빠듯했던 여정이 마무리된다. 길은 복잡하고 도시는 분주해도 한나절간의 짧은 여행이 주는 여운은 의외로 길게 남는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코스 정보

1코스 10킬로미터(4시간 소요)

문화마당(출발지) → 김춘수 〈꽃〉 시비 → 초정거리(김상옥) → 통영중앙동우체국(청마거리) → 돌벅수 → 통영향토역사관 → 세병관 → 운주당 → 간창골 우물 → 통영문화원 → 서문고개 → 박경리 생가 → 두석장 김덕룡이 살았던 곳 → 공덕귀 여사가 살았던 곳 → 충렬사 → 정당샘 → 함안 조씨 정문 → 전기불터 → 통제사 순찰길 → 오미사꿀빵 → 페스티발하우스 → 도천테마공원 → 해저터널 → 착량묘 → 서호시장 → 병선마당 → 이중섭이 작품 활동을 했던 곳 → 남망산공원 → 김춘수 시인이 살았던 곳 → 통새미 → 동피랑 벽화골목 → 김용주가 살았던 곳 → 김용익이 살았던 곳 → 청마 생가 → 중앙시장 → 문화마당

2코스 15킬로미터(5시간 소요)

해저터널(출발지) → 김춘수 유품전시관 → 해평열녀비 → 전혁림미술관 → 용화사 → 관음암 → 도솔암 → 미륵치 → 미륵산 정상 → 박경리 묘소 → 박경리기념관 → 산양읍사무소 → 현금산 → 미수체육공원 → 미수게이트볼장 → 통영대교 → 해양과학대 → 해저터널

*통영시청 관광진흥 담당 | 055-645-0101
통영시 관광안내소 | 055-650-4681

숙박

통영 여객선터미널에서 가까운 항남동 일대에 윈저모텔(055-648-8980), 모텔신라(055-643-3361), 엠모텔(055-649-3335), 넥슨모텔(055-643-6568) 등 비교적 깔끔한 모텔이 많다. 미륵도 도남관광지와 그 언저리에 위치한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055-643-8000), 충무관광호텔(055-645-2091), 카리브콘도텔(055-645-4070), 팜비치콘도리조텔(1588-8743), 전망좋은해피텔(055-642-3633), 통영마리나펜션(010-9393-9598), 통영파도소리펜션(055-641-7755) 등은 바다 전망이 좋은 숙박업소다.

맛집

강구안 문화마당 주변에는 뚱보할매김밥집(055-645-2619)을 비롯해 통영의 대표적 별미인 충무김밥 전문점이 늘어서 있다. 충무김밥 못지않게 인기 있는 오미사꿀빵(055-645-3230)을 맛보려면 되도록 오후 3시 이전에 찾아가야 한다. 용남면 화삼리에 위치한 통선재(055-645-6336)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휘하의 조선 수군들이 먹은 음식을 재현했다는 '이순신 밥상'을 차려준다. 이 밖에 항남동의 밀물식당(멍게비빔밥 · 055-646-1551), 충무식당(대구뽈찜 · 055-643-3765), 통영해물뚝배기(해물뚝배기 · 055-644-0663), 미륵도 용화사 입구의 용화찜(해물찜 · 055-643-0149), 도남관광지의 도남식당(해물뚝배기 · 055-643-5888) 등도 통영의 맛집들이다.

가는 길

승용차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나들목(14번 국도 · 통영 방면) → 미늘삼거리(좌회전) → 강구안 문화마당

대중교통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통영행 고속버스가 약 50분~1시간 간격으로 매일 16회 출발한다. 4시간 10분 소요.

'소 잃기 전'… 풍수해 보험 가입하자

국비 지원 보험료 남아 재해보험 가입 최적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사는 정기연(가명) 씨는 2008년 7월 집중호우로 집 지붕과 벽 일부가 파손돼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4천5백만원짜리 풍수해 재해보험에 가입해 둔 게 큰 힘이 됐다. 정 씨는 보험금으로 2천2백만원을 받아 집을 말끔히 수리하고 재해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풍수해 재해보험의 대상은 주택뿐만이 아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풍수해 재해보험도 인기다. 전남 해남군 해남읍의 김호상(가명) 씨도 보험 덕을 크게 본 경우다. 2008년 김 씨의 비닐하우스는 강풍에 쓰러졌다. 그러자 별 생각 없이 가입한 풍수해 재해보험에서 7백만원의 보험금이 나왔다.



일러스트 · 김영민

정부는 주택, 온실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복구비를 최대 90퍼센트까지 지급하는 풍수해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7~9월엔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만큼 풍수해 재해보험 하나쯤은 서둘러 가입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방재청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퍼센트까지 지급하는 풍수해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풍수해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풍수해 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같은 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전체 보험료의 57~64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6~43퍼센트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전체보험료의 86퍼센트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재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의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최대 4배까지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체 보험료 중 57~64퍼센트 정부 지원

지난해엔 풍수해 재해보험 가입자가 대폭 증가해 국비지원 보험료 63억원이 8월 말에 모두 동났다. 그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보험료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만큼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여름과 초가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징검다리'식 국지성 집중호우가 유난히 잦을 전망이다. 대형 태풍 2, 3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팀 이희춘 과장은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풍수해 재해보험 가입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만 객원기자

변신하지 마세요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아주 아주, 많이 많이 낮춰주세요.



무더운 여름밤 민화에 홀리다

무더위가 절정인 8월. 짧지만 달콤한 휴식이 필요한 계절이다. 여름휴가를 계획했다면 휴가지에서 좋은 친구가 될 책 한 권은 빼놓지 말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매달 좋은 책 선정위원들이 뽑은 문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 10권을 추천한다. 이들 도서 중 휴가지에 챙겨가면 좋을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 현대인에게 '철학'이란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다. 그러나 미국 피드먼트버지니아 커뮤니티칼리지의 철학과 조교수 마리에타 맥카티가 쓴 〈나를 찾아온 철학 씨〉를 읽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철학클럽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저자는 "정답 없는 질문이야말로 창조적인 사고를 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철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여유까지 찾는다.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고대와 현대의 동서양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각 주제에 맞는 음악과 시, 연극이 어우러진 이 책을 읽으면 철학의 향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추천사에서 밝혔다.

나이 마흔다섯에 민화에 빠져 정치경제학자의 삶 대신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기영 씨가 지은 〈민화에 홀리다〉도 볼 만하다. 민화작가 서공임 씨와 함께 만든 이 책은 '민화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화두 삼아 독자들에게 민화의 세계를 알려준다.

조선시대 민초들의 삶을 표현한 민화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그대로 담아 흥미롭다. 그러나 저자는 무엇보다 민화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로 은유, 환유, 직설화법, 과장화법 등 사실과 상상이 어우러진 다양한 표현양식에서 그 답을 찾는다.

김춘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당대의 판소리 사설, 조선의 직업 화가들의 기록을 담아 민화의 탄생과 과거를 소상히 알려준다"며 이 책을 추천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www.kpe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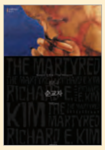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나를 찾아온 철학 씨
마리에타 맥카티 지음 · 한상석 옮김 · 타임북스 펴냄
현실과 거리가 먼 지루한 철학이 아닌 일상 속에서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철학 사용 설명서.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민화에 홀리다
이기영 글 · 서공임 그림 · 효형출판 펴냄
조선시대 민초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민화를 집대성한 연구보고서.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순교자
김은국 지음 · 도정일 옮김 · 문학동네 펴냄
한국계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재미작가 김은국의 대표작. 6·25전쟁을 배경으로 이념과 신앙의 갈등을 묘사했다.
추천 신경숙(소설가)



마을로 간 한국전쟁
박찬승 지음 · 돌베개 펴냄
전쟁 동안 마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6·25전쟁을 미시사 관점에서 세밀하고 찬찬히 들여다봤다.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십자가 초승달 동맹
이언 아몬드 지음 · 최파일 옮김 · 미지북스 펴냄
하나의 깃발 아래 싸웠던 기독교도와 무슬림 병사들의 군사동맹 사례를 통해 세계 문제의 시사점을 준다.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블루 이코노미
군터 파울리 지음 · 이은주 외 옮김 · 가교출판 펴냄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1백 가지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내 뒷마당의 제국
매니 하워드 지음 · 남명성 옮김 · 시작 펴냄
도심 농부의 자급자족 도전기를 통해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과학과 종교는 적인가, 동지인가
로널드 L. 넘버스 지음 · 김정은 옮김 · 뜨인돌 펴냄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파란 눈의 한국혼 헐버트
김동진 지음 · 참좋은친구 펴냄
일제 치하의 대한제국을 구하려 애썼던 한 미국인의 분투기를 담았다.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글&그림 · 사계절 펴냄
어린이에게 비무장지대의 아름다운 생태를 알려주고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겸손의 미학

글과 그림 · 최영순



가득 차면 오히려 부족하게 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게 된다.
– <명심보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노래하고 춤추며 열대야 이긴다

〈박미경의 따라 부르며 즐기는 8090 콘서트〉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무대, 기대됩니다."

가수 박미경이 8월의 첫째 주 토요일 저녁, 사방이 탁 트인 국립극장 야외문화광장에서 특별한 여름나기로 〈박미경의 따라 부르며 즐기는 8090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관객과 함께 노래하고 춤도 추는 '깜짝 이벤트'를 곁들여 더욱 눈길을 끈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박미경은 이번 무대에서 관객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신의 히트곡들을 메들리로 선보인다. '이브의 경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민들레 홀씨 되어' 등이 그것이다.

"최근 발표한 새 앨범에 그간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해서 여러 곡 넣었는데 이번 무대에서 그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앨범에 수록된 클론의 히트곡 '돌아와'도 새로운 버전으로 부를 거고요. 제 노래를 많이 사랑해주신 30, 40대 팬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올 것 같아서 함께 호흡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화끈한 무대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박미경의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이 1993년부터 꾸준히 펼쳐온 장수 프로그램 '토요문화광장'의 하나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국립극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토요문화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친근한 무대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상큼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이번 8월에는 열대야를 잊게 해줄 다채로운 공연이 매주 토요일에 줄줄이 잡혀 있다. 공연은 모두 오후 6시에 시작되며 비가 오면 취소된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8월 7일 오후 6시 **장소** 국립극장 야외문화광장 특설무대
관람료 무료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토요문화광장 공연 일정

● 홍대 놀이터를 옮기다 2탄 (8월 14일)

1부 **타카피** 4인조 펑키 밴드. 영화 〈와일드 카드〉의 '백만 송이 장미', 영화 〈위대한 유산〉의 '해뜰 날' 등의 곡으로 알려져 있다. 2부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직장인들의 일상을 절절한 가사로 표현해 마니아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 대표곡으로는 '미소녀 대리운전' '악어 떼' '석봉아' 등이 있다. 3부 **아침** 능수능란하게 관객과 소통하는 로큰롤 밴드. 깔끔한 외모와 거친 목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 버블 매직 놀이터 (8월 21일)

1부 **버블 아티스트** 공연장을 가득 메운 비눗방울이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비눗방울 쇼. 비눗방울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과 비눗방울 만들기 체험 등이 곁들여진다. 2부 **매직 아티스트**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마술 쇼. 카드 마술, 그림자 마술, 관객과 함께하는 마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 크로스 오버 퓨전 댄스(Feelish) (8월 28일)

여러 장르의 무용을 스토리로 엮은 댄스 퍼포먼스. 매혹적인 밸리 댄스, 열정적인 구애를 묘사한 재즈 라틴 댄스,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탱고 등을 선보인다.


Korea
Be Inspired
지친 당신을 위한 처방전
당신에게는 관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이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인터넷 검색창에 햇살론

햇살 참 좋~다!

대한민국을 밝게 비춰줄
따뜻한 금융, 햇살론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내일을
따뜻한 희망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햇살론

햇살론이 뭔가요?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 6개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입니다
(신용관리정보보유자 및 연체 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햇살론

*아래 금융기관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NH 농협 1577-5522
새마을금고 1588-8801 / 1599-9000
신협 1566-6000 / 1644-6000
수협 1588-1515 / 1644-1515
산림조합 02) 3434-7222
저축은행 SB 02) 397-8600
신용보증 해드림 신용보증재단 1588-7365